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屬僚政治의 弊

總督、局長會議에서 指摘

一

南總督은 九日의 初局部長會議에서 訓示하는 말가운대에 屬僚政治의 弊를 指摘하고 이의 是正을 命令하엿다. 即總督은 執務方法의 刷新策으로 事務의 分業은 조흐나 局部的 技術的 事務的에 흐러 全體的 大局的見解를 일허 在苒 時日을 遷延함은 所謂 屬僚政治에 陷할 憂慮가 잇스니 (一)事案의 立案處理에 關하여는 單只 主管課長以下의 獨斷으로 이를 遷延又는 決定하지말고 相當히 重大한事案에 關하여는 部局長 政務總監 總督의 指揮를 바더 그 方針에 따라 大局的 判斷을 그릇치지 안토록 留意하고 (二)各課의 專門的意見은 勿論 尊重하여야하나 그러나 橫으로 連繫잇는 關係部局의 連絡에도 留意하여 總督府全體로서의 一體的 體系를 整備하여 民間事業의 振興障止等에 조흔 反映이 잇도록 部局長이 잘 指導하라 하엿다.

二

屬僚政治의 弊는 어데나 잇는 모양으로 前者 外務省의 紛糾問題도 屬僚政治의 弊의 一端이라 일커럿거니와 近來 行政機關의 擴大되고 細分됨에 따라 이 屬僚政治의 弊는 더욱 顯著한 듯하다. 即 一課又는 一係의 關係가 立案하는 事項은 無批判的으로 局部長, 次官, 大臣에 이르러 所謂盲目印을 찍는 일이 만흐니 近來 事務次官이 政務次官보다 大臣되는例가 만흔것은 그것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뿐아니라 立案又는 受付하는 課又는 係員이 한갓 書式問題와 手續問題等에 拘碍되어 緊急且 重大한 事案을 오랫동안 自己案上에 묵허두고 在苒 時日을 遷延하는 例는 非一非再니 例컨대 產金政策은 國策으로서 緊急重要한 일인데 不拘하고 出張을 늣게 가거나 登錄, 許可處理를 遲延하야 國家의 目的을 達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이며 國有地의 貸附 干潟地의 埋立(地), 其他 產米增殖, 生產力擴充等 國家 緊急의 事業에나 民間有志들의 發起로되는 私立學校認可에 手續의 不備와 內容不充實을 理由로 在苒歲月을 遷延하는것은 그하나다. 總督의 許可又는 認可를 要하는 일이 이러하거니와 道知事 警察署長의 許可로 되는것도 여러가지 不備를 理由로 오래 時日을 끄는것은 恒常吾人의 目睹하는바다.

三

國家非常時를 當하여 吏道를 刷新하고 行政을 刷新하는것은 當局의 急務다. 曩者 南總督이 總督의 權限事項을 多數 政務總監 各局長 各道知事의 權限事項에 옴긴것은 行政刷新의 一方法으로 解釋되어 吾人의 記憶에 새롭거니와 總督의 今次訓示는 事變下 執務刷新에 一大拍子를 加햇다 하겟다. 從來 朝鮮에는 官尊民卑思想이 잇는데다 官僚政治가 行해지는곳이라 官의 民에對한 態度가 或 親切을 缺한다는 非難이 잇고 그中에도 屬僚政治가 流行한다는 一部의 批評도 업는바 아니다. 屬僚는 政府의 方針을 執行하는 事務官이다. 事務官이 大局的 見地를 狹限케하고 한갓 事務的 技術的 일에 拘碍되어 事案을 遲延한다면 國家非常時에 重大한일이다. 이것은 오직 產業部門에 限할것이 아니오 思想·言論·藝術·道德·風俗等 各方面에 잇서서도 適用되어야할것이다.

政局推移遂重大化!

政局一新의 決意에

全閣僚間意見一致

十二、三日頃決意表明?

【東京電話同盟】衆議院有志代議士會의 反政府運動을 國總코 舊臘來 混迷狀態를 繼續하고잇던 政局은 更히 八日의 阿部首相과 畑陸相과의 會見을 契機로 緊張의 度를 加하고 一方阿部首相은 各方面의 情勢를 基礎로 政局에 對한 陸軍側의 見解를 기피檢討한 結果 政局의 一新을 決意하게되어 十日朝來 今後政府가 取할 具體的方途에 對하여 苦慮하고 同日閣內에서 終始强硬論을 主張하여 時局打開를 進言해온 秋田厚相을 招致하여 率直히 그意見을 무른다. 永田鐵相과會見 그意向을 聽取하여 政局一新의 具體策에 贊하고 一方秋田厚相은 遞相官邸로 永井遞相을訪問 首相과의 會見에서 看取한 首相의 心境을 述하고 今後의 方途를 協議하엿는데 兩相이함께 首相의 最後的決意를 看取하여 從來의 態度를 拋棄하고 政局收拾의 善後措置에 心境의 變化가잇는 모양으로 各閣僚는 모두首相으로부터의 正式決意의 表明은업스나 以心傳心 政局一新이 不得已하믈 覺悟한것으로보이는바 이제남은 問題는 首相의 決意를 何日晉 決定하느냐 하는것뿐이다 그리고 事態가 이가치 表面化한以上 空然히 遷延을 不許하므로 首相은 陸相으로부터의 再次의 進言에對하여 어떠한意思表示를한뒤에 十二日의 定例閣議에서 全閣僚에게 正式으로 政局一新의 具體化에關하여 率直히 그決意를 表明하고 同日 或은 諸般問題를 整理한후 느저도 十三日中에는 政局一新의 決意를表明할 模樣으로 이一兩日中의 政局은 가장 重要視된다

陸軍首腦重要協議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十日午後陸相官邸에서의 軍事參議官會同後畑陸相 阿南次官 澤田參謀次長 武藤軍務局長等 參集하여 政局의 安全方策에 關하여重要協議를하엿다

日印會商來週開催

【칼캇타十日發同盟】日印會商은來週에開催되게되엿스므로 若松帝國總領事는 右會商出席次 十日칼캇타發出發 뉴데리로向하엿다

敵遺棄屍二萬餘

武漢周邊十二月中戰果

【漢口十日發同盟】敵의冬季攻勢를 一擧히粉碎할 武漢周邊地區 十二月中의 綜合戰果는 다음가치 赫赫한바가잇다

一、敵狀—敵裝備兵의素質의劣惡이 顯著하게되어 捕虜로서 所屬大隊長의 氏名을알지못하는者八十%의 多數에達하는模樣인데 捕虜及遺棄屍體의 所持冊子는從來의 三分의一로制限되어 十發에不過하다

二、交戰回數—江北 四五四 江南 三八六 計 八四〇

三、『敵遺棄屍體』—江北 一三、一三〇 江南 一八、〇二四 計三〇、一五四

『捕虜』—江北一一四、江南四〇七 計五二一

『鹵獲品』—江北 江南 計

迫擊砲	三	七	一〇
輕機	一一六	八二	一九八
重機	三	四	七
小銃	一、六四一	一、二五七	二、八九八
砲彈	一七四	一、六六一	一、八三五
手榴彈	八八、六八〇	四、三三〇	一〇、二三三
小銃彈	三六、一八〇	三〇、八四四	六七、〇二四

陸軍作戰에協力 北支海軍機活躍

【南昌十日發同盟】海軍武官府發表 魯東地區에서의 空陸이 呼應한連日의 掃匪猛攻作戰은 큰戰果를 거두어 大集團의 匪團은 거의殲滅되엿다고는하나 아직 敗殘匪는 到處에集結 蠢動하고 잇스므로 이를 徹底的으로 掃蕩하기 爲하여 我海軍航空部隊는 陸軍의作戰에 協力하여 到處에서 大活動을 繼續하고 잇섯는데 지난八日 午後 杭縣 良鄕 辛莊 北鄕等各部落을據點으로 散在한 敵이 集結中인것을알고 即時 艦隊攻擊機를 同方面에出動시켯다 敵然히 暴炸을敢行하여 猛烈한反復爆擊과 機銃掃射를敢行하여 殲滅的打擊을 주고 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敵遺棄屍 九千餘

敵交戰兵力十萬

〇〇部隊十二月中戰果

【濟南十日發同盟】〇〇部隊管下 十二月中의 戰果는如左하다

交戰回數	六一三
敵總兵力	一〇五、〇〇〇
敵遺棄死體	九、九〇〇
同捕虜	五〇〇
鹵獲兵器	
小銃	二、四七〇
同彈藥	二〇九、〇〇〇
拳銃	二七四
輕機	六
重機	三
迫擊砲	四
洋砲	四九〇
手榴彈	三、七〇〇
自動車	七
馬匹	一七〇
其他多數	

【濟南十日發同盟】〇〇部隊管下地區에서의 敵의 冬季攻勢는根氣지게 되푸리되엇는데 我軍의機先을 制한 討伐로 徹底的으로 粉碎되어 左와如히 빗난戰果를 거두엇다

皇后陛下御仁慈

乳幼兒의保育事業에

御內帑金七萬圓下賜

【東京電話同盟】畏하옵게도 皇后陛下께옵서는 近時 時局下 地方勞力의不足이 甚하여 特히 春秋農繁期의 乳幼兒에미치는 影響에 기피 大御心을 垂하옵시는바 近年農村漁村에 勞力不足을 調整하기위하여 各地에 現在一萬五千의 季節保育所가 設置되고 또訪問婦等의 活動으로 이를 困窮者를 救濟하여 年年二十萬에 達하는 乳兒死亡率을 減少케하고저 出征軍人의 遺家族에게 出征軍人에 從事하여 救護의 勞苦를 慰하여 그 근심을없게하는等 着着事業의 成績을 올리고 잇는것을 御嘉賞하옵시와 今般 十日 同事業奬勵의 御趣旨로 御內帑金七萬圓을下賜하옵시니 고마옵신일이다 그리하야 十日附 宮內省에서 秋田厚相은 午前十時宮內省에 出頭 松平宮相으로부터 御下賜金을 拜受하고 御仁慈에 恐懼感激하여 退下하엿는데 厚生省에서는 右御下賜金으로 全國優良保育所를 報告케하여 오는 二月十一日紀元二千六百年의 紀元佳節을 卜하여 此等保育所를 表彰 御趣旨에 奉副할터이다

久邇宮朝融王殿下

御轉補發令

【東京電話同盟】中支戰線에 御活躍, 억마전 凱旋하신 久邇宮朝融王殿下께서는 十日附로 橫須賀鎭守府附에 御轉補되셧다

海軍省十日公表 海軍大佐大勳位 朝融王 今日附左와如함 補橫須賀鎭守府附仰付

海軍軍事參議官會議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十日午前十一時부터 海相官邸에서 定例軍事參議官會議를 開催하고 永野、百武、米內、加藤各參議官 海軍省側으로부터 吉田海相、住山次官、阿部軍務局長이 參集하여 支那新政權問題를 中心으로 여러가지로 懇談을 하고 午餐을 함께하고 散會하엿다

新政權支援方針

具體的으로協議

今日興亞院連絡部會議開催

【南京十日發同盟】新中央政府成立의 支援方針을 決定할 興亞院連絡部長官 會議는 드디어 十一日부터 南京에서 開催되기로 되엇는데 第一日은 東亞俱樂部에 柳川總務長官以下 蒙疆 華北 津田華中 水戶廈門 各連絡部長官 石川政務 第一課長 吉川中佐等이 會同 主로 興亞院關係의 打合을하고 翌十二日에는 總軍司令部內에서 會議를 開催 柳川長官으로부터 我基本方策에 關하여 說明하고 更히新政府 成立後의 政府에의 具體的 支援方策의決定은 新政府의 誕生을 目睫에압두고잇는 新政府의 成立에 一層 拍車를 加하는것이라하여 極히 注目된다

"괌"島武裝에兩論

米下院의態度極注目

【華盛頓九日發同盟】스타크海軍作戰部長은 九日下院海軍委員會에서 다시 괌島防備強化를要求한바 議場은 大混亂에 빠젓는데 新聞記者團에對하여 괌島防備強化의 必要를 力說하여 左와如히 述하엿다 米國海軍은 괌島武裝의 必要를認定하고 右에要할 經費를 議會에 要求하엿는데 괌島의 防備強化는 主力艦二隻乃至三隻의 建造費에 相當하는 効力을 가질것이다. 그런데 괌島武裝이란것은 同島를 水上機及 潛水艦基地로서 使用하려는것으로서 이에要하는 經費는 겨우八千萬弗로써 足하며 同島를 完全히武裝하더라도 二億五千萬弗을 要할뿐이다

【華盛頓九日發同盟】스타크海軍作戰部長이 九日下院海軍委員會에서 괌島防備施設強化를 要求한것은 이問題에關한 昨年議會의經緯를보면 意外의 感이잇는데 今番은 特히 巧妙한作戰을 取하고잇다 이에 要할 豫算을 第十四海軍區(布哇地方)의 豫算에 包括시킨 것이다. 괌島問題가 注目되고잇다 米國海軍은 歐洲大戰을 潮藉로 可及的 多額의 海軍豫算을 要求하여 海軍充實을 圖謀하려하고 잇는바 괌島防備强化에 相當한 熱心을 가지고잇다한다 最近米國各地에 散布된 『大平洋上의 軍事的危機! 괌島施設은 事實로 必要한가?』라는 宣傳映畫로 보더라도 米國海軍은 歐洲戰爭에 潮藉하여 大海軍建設에 熱中하고잇는것이 明瞭하다 特히 괌島防備案은 昨年議會가 猛烈한論爭끄테 드디어否決된데도 不拘코 이것을다시 議會에 提出한것은 下院海軍委員會에서는 이미 反對의氣勢를보이고잇스나 議會가 어떠한 問題를 如何히處理할지 今後의 問題로서 注目되는바이다

對芬新借款意圖

米大統領、妥協中을言明

【華盛頓九日發同盟】米國政府는 알서 芬蘭救援資金으로서 一千萬弗의借款을供與하엿는데 루즈벨트大統領은 九日新聞記者團과의會見에서 알서芬蘭에供與한 一千萬弗의 借款이 자못 順調로 運用되어잇는事實에鑑하여 余는 目下國務省當局과의間에 更히新借款을供與하는데 關하여 協議中인데 來週中에는 이에關하여 詳細한發表를 할수잇게 되는것이다 라고말하고 對芬新借款의 意思가잇는것을 表明하엿다

宗敎界代表와

米大統領會見

【華盛頓九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九日米國宗敎界의 代表者를 화이트하우스로 招致하여 歐洲에서의平和回復의 可能性에 對하여意見을交換을하엿다 會見後루즈벨트 大統領은 記者團의 質問에對하여 余는世界의 宗敎家가 非公式으로라도 一致協力하여 世界의輿論을 움지겨서 平和를回復하여 주기바란다고 希望을表明하엿다 그리고 今日 會見에列席한 一宗敎家는 다음가치 말하엿다 大統領은 조곰이나마 今春頃에는 平和에의 具體的動向이 나타나기를 밋고잇다는 印象을바덧다 그리고 萬若이런時期가 到來한時에는 各宗派는 一致하여 그發展에 協力하도록 要請되엇다

四萬五千噸主力艦

方今二隻을建造中

【華盛頓九日發同盟】스타크海軍作戰部長은 十日下院 海軍委員會에서 五萬噸 乃至二千噸級巨艦建造計畫을 說明하엿다 今日까지의 硏究의 結果로보아 米國海軍은 五萬噸乃至五萬二千噸의 主力艦을 建造할수잇다 그러나 現在로보아 그以上의 巨艦建造의 意圖는업다 六萬二千噸級의 主力艦建造는 設計上은 興味잇는것이고 그性能도 明白히 小主力艦에比較하면 優秀한것인데 大艦建造는 全體의 艦艇의 減少을보는것은 不利하다 六萬二千噸級이라하여도 파나마運河에建設될 新閘門을 通過하기에困難치는안흐나 하버新閘門이故障을生한時에는 通過할수업게될것도 考慮하지안흐면안된다 今年度에는 먼저 四萬五千噸級主力艦四隻을 建造할 計畫으로 그中二隻은 이미 目下建造中이고 그裝備는 일찌기볼수업는 優秀한것으로 三十三浬의 快速力을 가진 高速力艦이다 他에 海軍省은 要塞長距離用超巨砲一百艦建造計畫이고 또主力艦에十八吋砲의 巨砲積載를 目下試驗中이다

今日本紙朝夕刊合十六面

深刻한同志相爭

國共兩軍武力衝突頻頻

【石門子(石家莊)十日發同盟】 十日早曉부터 新年에걸처 石門子(石家莊)를中心으로한 冀南各地의 我部隊는 때때로 異常한 銃聲을듯고 가보면 多數의敵兵의 死體가 遺棄되어잇서 實로奇怪 한 形跡이잇다 이것은 敵國에 末期的現象으로서 同志相爭을하고 잇는것으로 地盤다툼이原因으로 從來各地에잇던것인데 最近은更히 新政權成立을 압두고 共產系八路軍은 國民黨系軍隊에對하여 國民黨系軍은 共產軍에對하여 서로新政權이成立되면 그리보통지 모르는 疑心을 하여從來의 軍紀한 地盤다툼에서 나아가 深刻한 鬪爭을하고잇서 今年에 드러서 冀南東百키로地區의 呂正操軍과 八路軍과의 衝突 井陘北方地區에서의 衝突事件 順德西方山地의 衝突事件等 모드 相當히 激烈한戰鬪로 我軍에 依하여 發見된遺棄死體만도 多數에達한다

敵遺棄屍一千餘

崇陽周邊殘敵掃蕩

【漢口十日發同盟】崇陽西方山地內에서 敵中央僞系 八十二、八十八師를 粉碎한 我部隊는 九日夜半崇陽西南高地點 石球子를占領後 繼續하여 敵陣을 西方으로 急追 十日早曉 我第一線部隊는 벌써石球子의 西方六키로의 線에 殺到하엿다 도마뱀以下의 各部隊는 서로呼應하여 崇陽南方三키로 張家山附近에서 一九 百三十三 百三十四 師三個師를 粉碎한佐野 寺島 湧浦部隊는 十日朝來敵을西南方으로 急追中이다 지난四日부터 七日까지에 前記各部隊가 어든 綜合戰果는 敵遺棄死體一千百의 多數에 達하엿다

輕機	三五
重機	二一
小銃	五七
迫擊砲	三
洋砲	一
砲彈	一、三〇〇
手榴彈	一、二〇〇
馬匹	六八
自動車	四〇

國共軋轢深刻

【太原十日發同盟】山西省內에서의 共產軍、山西軍、中央軍의三者가 서로엉커서 同志相爭을하고잇는바 이鬪爭은날로 陣營의紊亂無統制狀態를 謂하엿고잇다 最近太原에 遊說한 敵同志의武力衝突이 잇고 昨年末以來判明된것을 加하면 벌서 그數十數件에 達하여 자못注目을 끌고잇다

一、第三十四軍二百十三旅의 幹部는 共產系分子에 依하여 占領되고 그結果 同軍은 날로 赤化의 傾向을 밟고잇는데 이에憤慨한 山西第六十一軍長 陳長捷은 第三十四軍及 其他僞軍이 一旬되어잇는 汾陽縣政府를 一擧에 粉碎하려고 一月十日午後十時를 期하여 突然 同縣西南方 約三十키로의 鶴坡에 잇던 二百十三旅及 僞縣政府 警備隊를 兩者間에 激烈한 戰鬪가 잇섯는데 結局 二百十 三旅長은 一旦 據地의 打擊을 맞고 新縣의 破壞를 겨우모면 하여 東方으로 潰走하엿스나 同政府의 職員 及 縣長은 捕虜되엿다

二、山西保安隊 第十三團長 揚振邦과 第四縱隊 游擊隊長 揚振邦(中央軍系)와는 오래前부터 對立抗爭을 繼續하고잇던바 昨年十二月 十一日大王莊村(汾州東南方約四十키로) 一帶 地區에서 衝突하게되어 그結果 揚振邦은 大打擊을 엇고 內部分裂로 潰走하여 山西 保安隊 第十四團長 宗衛鄕에 救援을 求하엿다 그러나 가튼 山西軍의 保安團長이면서도 일찍부터 揚振邦을 조케 생각지안튼 宗衛鄕은 이를 拒絕하여 드디어 揚振邦은 更히 第二十四師에 工作하여 小銃五百餘의 補給을 밧고 兵力의 整備增强을 하고 近間다시 揚振邦과의 間에 一戰을 하려 하고잇다

興亞院連絡部

被襲兩參議를慰問

【廈門十日發同盟】八日廈門에서 抗日테로團에게 狙擊되어不幸 重傷된 廈門市政府參議 및 魏에 빠진 廈門市政府參議資格(?)及 劉傳英兩氏에 對하여는 我方으로부터 기피 同情을 보내고 잇는바 興亞院廈門連絡部에서는 長官代理로 하여금 救世醫院으로 資氏를 慰問하고 博愛會醫院으로 劉氏를 慰問케하여 慰問金一封을 贈呈하엿다 이와 前後하여 李市長도 同樣慰問하엿다 資氏는 腹部其他에 四彈을 바더 依然危險狀態를 떠나지못하엿스나 意識은 極히明瞭하다、劉氏는 博愛會醫院으로부터 手術을 바더잇는데 負傷後 三週間餘가 지낫 良好한데아직 三週間餘의 療養을要하리라한다

蘇軍、敗戰確認

加奈陀師團

英國軍에合流

【巴里九日發同盟】加奈陀遠征軍司令官 마크노튼少將은 霸國軍 거나리고 九日英國으로부터 佛國某港에 到着하엿다 同司令官은 去月十八日 加奈陀軍一個師團을 引率하고 英國에到着하엿든 來 英國에서 加奈陀軍의 猛訓練을 하고잇던바 今次마크노튼 司令官의 渡佛로 드디어英國遠征軍에 合流하는것으로보인다

【莫斯科九日發同盟】레닌그라드 軍管區司令部는 九日 開戰以來 비로소 芬蘭中部戰線에서의敗退를 確認하여 如左히發表하엿다 九日 호크라地方에서는 彼我步兵部隊間에 猛烈한 戰鬪가 잇섯는데 그結果 我軍은 스오미살미우의 東方數키로 地點까지 不得已撤退하엿다 그리고 레포란페트로자보드스크地方에서는 偵察戰、카렐리아地峽方面에서는 緩漫한 砲擊戰이 잇섯슬뿐이다

大阪經濟使節團渡支

【大阪電話同盟】大阪市 에서는 皇紀二千六百年 劈頭의 事業으로서 市內各業界 代表者로 組織한經濟使節團을 南支、中支、北支의三班에 分하여 大陸으로派遣支那重要市場의 貿易產業、農業等의 現狀을 視察調査하기로되어 一月下旬부터 二月上旬에걸처出發하기로되엇다

駐日蘇大使

外相과要談

【東京電話同盟】스메타닌駐日蘇聯大使는 十日午後五時 外務省으로 野村外相을訪問, 約一時間에걸처 要談하엿다

卡大使重慶서策動

【上海十日發同盟】重慶으로부터의 트란스오산電에 依하면 카英國大使의 重慶訪問은 重慶朝野에 多大한關心을 이르켜그目的에 對하여 各種데마가 橫行하고잇는데 一說에依하면 카大使의重慶行은 支那로부터 英國이必要한原料品을獲得하려는交涉을하기爲한것으로 보여 매우注目된다

無錫縣知事射殺

【南京十日發同盟】江蘇省 無錫縣知事 楊壽楣氏(江蘇水利督辦楊壽楣氏의令弟)는 九日午後四時半頃 同市의繁華街를 通行中兇漢에게 拳銃의亂射를맞고 即死하엿다 犯人은 同氏의昏倒하는것을보자 곳逃走하엿스므로 我警備隊는 犯人逮捕키에 搜査에 努力하고잇다

早稻田大學講義錄

校外生募集

躍進日本의明日을爲하야 興亞의偉業達成을爲하야 勤勞靑少年子女여러분에게 이講義錄을 推奬한다。

讀者는모두本大學의校外生으로서待遇하며누구에게나學校에서授業하는것과꼭同等의學力을엇도록萬全의指導를함。

詳細는內容見本으로알도록하라

志望하는講義錄과住所氏名을分明히써서申込하는데로누구에게나곳送呈함。

中學講義	前後期各一年・月一圓
商業講義	一年半修了・學費月一圓
高等女學講義	一年半修了・學費月一圓
電氣工學豫備講義	一ケ年修了・學費月一圓
政治經濟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廿錢
法律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廿錢
文學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廿錢
建築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卅錢
電氣工學講義	一年半修了・月一圓卅錢

內容見本은반드시志望하는講義錄을써서申込할것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二三 電話牛込三一二四五

補血强壯

体位向上劑

ブルトーゼ
부 루 도 — 제

各帝大病院常備藥

造血アウトホルモン

ブルトーゼ 小瓶・大瓶
アン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ネオブルトーゼ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壽子・活動の源泉・無代送呈

不正建築工務者一掃의 取締規則制定考慮

當局, 積弊矯正코저 實情調査

조선사람의 주택난(住宅難)은 날이 갈수록 심하여 가고 이러한 틈을 타서 간악한 건축업자들은 이 틈을 타서 … 일반대중의 주택경영에 … 그중에 … 일반 주택업자의 피해는 실로 막심한 것이 있다 그래서 … 주택건축청부업자 취체규칙을 제정하기로 되었다 …

乘客얼리는京電

後進都市에까지되어잇는保溫設備가업다고

一般의非難聲昂高

요즈음같이 몹시 추운 때에 … 전차에 보온설비가 업서서 … 부산·동래사이의 전차에는 … "써—비스"를 … 경성전기회사에 … 일반승객에게 대하여 "써—비스"가 부족하다 …

"이래도—써—비쓰"인가

"써—비스"가 부족하다는 원망의 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잇다 … 하지안흘수업는 일이다

八木運輸部長談

일에 대하여 경성전기회사 팔목(八木) 운수부장은 이러케 말한다 그런 설비를 할 생각은 하여 … 현재의 전차를 … 조선과 중지(中支)간의 …

父兄에警告

어름에 빠저죽어 … 【咸興支社發】 위험한 어름우의 … 고한다

新患者連日發生

九日現在卄三名

慶南道內에痘禍去益猖獗

【晉州支社發】경상남도에 침입한 두창(痘瘡)은 날이 갈수록 만연하여가서 방역당국을 놀라게 하나 … 한천군 … 합계 오명의 신환자가 발생하여 구일현재로 두게 이십삼명에 달하엿다 이에 도위생과에서는 지금 한창 … 방역의 완벽을 기하고 잇다

保險金橫領犯

清州署에被逮

【忠北支社發】청주경찰서에서는 … 시내 … 박상식(朴常植)이라는 자를 체포하여 … 사기횡령 … 취조하는 중이다

京城驛運送組合結成

오는 십오일부터 실시되는 조선소운송업령을 압두고 비지정업자(마루보시)를 제한 경성역구내작업조합, 경성운송조합과 경성운송업자 합동 … 개편하기로되엿다

晉州에火災

損害는約五千圓可量

【晉州】지난 구일오전구시에 진주부내본정(本町)일흥권판(日出館)에서 불이일어나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 이웃까지 … 손해는 약 오천원이라고 한다

祭基町火災

십일오후 일곱시반쯤 부내제 …

汽船增配를要望

朝鮮과中支間通商에

每月最少限度로三回往復緊要

【上海】동아신질서건설과 아울러 조선과 중지(中支)간의 통상(通商)은 날로 긴밀화하며 아울러 상당히 발전성이 잇스나 현재로서는 조선 상해간의 직통기선이 한달에 한번 밧게업스므로 크다란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조선과중지간의 통상은 더 발전할수가 업스므로 하로바삐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에서 한달에 최소한도로 삼회왕복을하도록 기선의 증배를 요망중이라 한다

北青地方에大雪

【北青】눈안나리는 겨울로 유명한 금룡도 새해를 마저 지난 팔일부터 북청지방일대는 눈나리기 시작하여 팔일에는 삼사촌가량의 강설이 잇고 멈첫다 다시 십일새벽부터 내린 눈이 종일 멈추지 안코나려 일척이상의 적설을 보앗는데 금룡은 겨우 두번째의 강설로 그간 눈이 나리지 안허 목재운반을 못하여 초조한 비즐 띄고 잇든 목재상계에서는 상당히 활기를 띄고 운반작업에 착수하는등 한편 눈이 안나려면 은 흉작을 면치못하리라고 근심하든 농가의 근심도 이 눈으로서 완전히 해소되리라고한다

칼부림하는쌈패

窃盜常習少年逮捕

優良店員表彰

元山商議에서

大京城工都化에拍車

內地資本誘致隊今月下旬發程

대경성의 공도화(工都化)에 박차를 가하고저 경성부에서는 … 내지자본을 유치하고저 … 이달 하순경에 … 출발하기로 되엿다 …

三圓八十錢

貧民每戶에同情

【元山】 …

太陽에二大黑點

落照時엔肉眼으로볼수잇다

大阪市立遞信科學館撮影成功

【大阪電話同盟】 태양의 흑점은 … 대판시립체신과학관에서는 … 촬영에 성공하였다 …

龍山署武道耐寒練習

용산서에서는 …

今次山火災民에

前後三千圓分配

江原道에서道費로

【春川】 영월군 상동면 … 산화재로 … 삼백사십명으로 … 일천오백원을 …

强行會

江原道警察部서

【春川】 강원도경찰부에서는 … 지난 십일 … 비상소집을 행하였다 …

密陽邑에三千圓

鑛業家金斗贊氏美擧

【密陽】 김두찬(金斗贊)씨는 … 밀양읍(密陽邑)에 … 삼천원을 기부하여 …

"京都大學팀"의 攻擊精神에感歎

覇者普專籠球昨日凱旋

半島籠球史上에 燦然한 記錄을 남긴 普專籠球軍 一行은 昨十日 午後四時三十分 京城驛着列車로 凱旋하엿는데 …

立敎籠球軍二敗

四個署員聯合

攻防戰大演習

神宮氷上하키高專部

延專과普專이決勝에

朝鮮神宮氷上하키大會 第三日인十日은 高專部 …

▲延專對世醫專戰 【審判—梅津、愼兩氏 開始時間—二時十五分】

延專 6 (3—1, 2—0, 1—0) 1 世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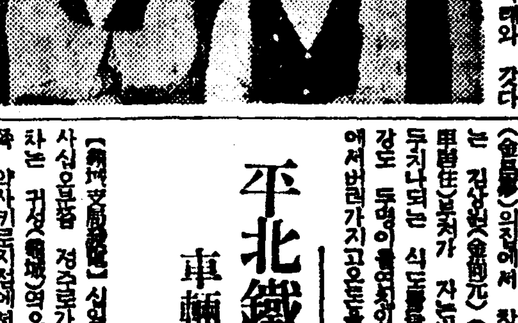
【延專】		【世醫專】
	FW	
	DF	
	GK	

▲普專對京醫專戰

普專 3 (1—0, 2—1, 0—0) 1 醫專

딱총

▲一月十一日(木曜日)陰十二月三日 ▲干支—癸丑 ▲日出—午前七時四八分 ▲日南中—午後零時四一分 ▲日入—午後五時三四分 ▲滿潮—九時四六分 ▲月出—午前八時二九分 ▲日入—午後七時二一分 ▲滿潮—午前六時三〇分—午後七時



瓦斯熔接器

根津工業株式會社 大阪港區九條通二丁目

各種製材木工機械専門製作 調帶鋸工具類其材用品 直輸入商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

羅紗洋服荷捌

大衆向 三ツ揃、オーバ、詰衿上下 ズボン・ジャンパ・ゴルフズボン

大阪市東區谷町一丁目十八番地 田中宇商會 電話東三〇三五番

謹賀新年

舊年中の御引立を謝し 本年も倍舊の御厚情を冀ふ 昭和十五年一月元旦

ワイシャツ 折衿シャツ 洋裝附屬品 卸商 野村集商店 大阪市順慶町四

カニモーハ ドンバ アリロクス

一番有名な! 一番優秀な!

中井樂器店 大阪日本橋四丁目

食台

家庭用金物 硝子食器・荒物 卸商

田中新商店 大阪市西區北堀江通六

新興からし 新養椒粉

月美人印カレー 製造本舗

白樂薰氏以宿患一月六日午後三時別世玆以告訃

アモンパパヤ

어드름 주은깨 厄退散

矢十字葡萄酒

東亞躍進の新春 節約國策の飲料

ベルツ丸

梅毒과體毒에 効果잇기로評判인

本舖 鈴木日本製藥社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

時計 共信堂時計舖

哈爾賓

哈爾濱道外南馬路南康街
鮮滿産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義陽
專務取締役 沈俊善
支配人 金國明

哈爾濱市埠頭區買賣街六一
半島聯合消費組合
組合長 金用枋
理事 李秉器

哈爾濱貿易合資會社
代表社員 李應春
專務 林寬春
會計 後藤一雄
機械農具部 趙仁喆 林明圭 安明山

哈爾濱南馬路南康街五
鄭秉植

哈爾濱道裡中央大街三三
農具機械商 豐滿洋行
電話五三三六番 八五七五番
崔熙警 盧秉晃 盧秉時 康麟角 李根培 趙善弘 李思玉

哈爾濱道外南馬路
朝鮮割烹 銀月
電話三一七九番

哈爾濱道外南馬路
哈爾濱朝鮮人學校組合

哈爾濱香坊油坊街
和源泰精米所

哈爾濱道外南馬路
農具機械 肥料商 北滿農具株式會社
電話七二〇六番 振替ハルピン六二〇番 電略ホマノ又八（ホノ）

北安省綏稜縣城內
鐵源商會
主 尹達夏 金永圭
電話五五 六五番

哈爾濱道外許公路九〇
北滿膠皮公司
電話六一五六番

哈爾濱道外南馬路
滿洲帝國協和會
哈爾濱朝鮮人分會

哈爾濱
李春基
電二〇四五番

哈爾濱道外太古六道街一九九
哈賓自動車交通合資會社
電話八五一四番

綏化縣城內北大街
平安旅館
朴燦
電話四一二番

滿洲國濱江省巴彦縣窪興鎭曹臣屯
永興精米所
代表者 黃一周

濱江省巴彦縣窪興橋曹里屯
窪興橋農務稧

哈爾濱道外承德街
東豐泰精米所
朴明鎭
電話六三五九番

哈爾濱道外承德街
濟東醫院
院長 金中和
電話五八一五番

哈爾濱
宋義淳

哈爾濱道裡外國頭道街一四ノ一
松花江ホテル

哈爾濱
哈爾濱金融會

哈爾濱道外八區中馬路
日出精米所

哈爾濱道外南馬路南和街
東亞精米所
楊濟七

哈爾濱道裡外國七道街一四
泰平旅館
李松竹
電話七二二番

哈爾濱道外南馬路南康街四號
張泰山
電話六〇一四番

哈爾濱道裡沙曼街
大東醫院

哈爾濱道外承德街濱江縣前
農具機械商 元興商會
主 金元錫

哈爾濱新安阜安德街
元東明

哈爾濱道裡モストワヤ街
新滿ホテル
主 趙光吳
電話七二二七番

哈爾濱道外景陽街九
朝日堂藥房
趙奎喆

東興縣武興街
榮興洋行

濱江省巴彦縣興河農庄
興農庄 總務 米所主任 嚴柱明

東興縣長壽區二道街
尹友石

東興縣文治街
朝鮮精米所
金鎭夏

東興縣長壽區三道街八
金吉德

濱江省巴彦縣中太平街
李圭承

北安省綏化縣城內
裵鎭原

北安省綏化縣城內北大街
朝鮮冷麵屋
電話四五番

東興縣南大街
朴台箕

滿洲國濱江省安達街
大成洋行
主 高雲山

滿洲國綏化縣城內文安街四〇四
徐洪範

哈爾濱道外純化街
北滿醫院
電話八二四一番

哈爾濱道裡
石元旭
電話六六二七番

哈爾濱道裡
平安館
鄭寅燮

哈爾濱
黃崇燁

哈爾濱驛前
福順棧
金潤鎬

哈爾濱道裡大同商場
ウラチオ食堂
車利献

哈爾濱新安阜安阜街十二
春岡漢藥房
全春岡

濱江省巴彦縣濃河農庄
代表 李四範

濱江省東興縣公署
高鎭庠

東興縣福安二道街一七
尹國賓

東興縣城內
東鮮精米所
朴亨權

東興縣城內
車鐵秀

東興縣城內
東鮮商店
朴亨一

居昌

居昌邑事務所
加祚面長 鄭漢哲
月川面長 李聆義
北上面長 林碩鍾
渭川面職員一同
馬利面長 鄭丞周
南下面長 尹秉洙
南上面長 金鎭翰
高梯面職員一同
加北面長 金在明
神院面職員一同
熊陽面長 李鉉克
主尙面職員一同

慶南居昌郡農會副會長
米穀統制組合副組合長
金成昌

居昌警防團後援會
會長 全相吉

居昌興業株式會社
社長 裵台星
支配人 李建容
營業所
大邱營業所主任 愼利晟
金泉營業所主任 愼珪晟
居昌營業所主任 崔相煥
渭川營業所主任 姜啓生

居昌郡廳

河山醫院
院長 河周鉉
電話二六番

居昌繁榮會
會長 愼鏞禧
電話四七番

大邱地方專賣局
居昌出張所
職員一同

南昌醫院
愼昌縡
電話二九番

最新流行
京屋洋服店
主 劉載賢

居昌警察署長
熊谷新作

居昌藥酒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全相吉
支配人 愼重穆

居昌邑上洞
和信連鎖店
電話四五番

馬利面栗里釀造場
主 金永杓

居昌邑鍾路
司法書士 吳鳳鎬

居昌邑金泉洞
邑會議員 宋在述

居昌春秋會

安齒科醫院
齒科醫師 安義成

矢項金鑛事業所
金昃宇

加祚金融組合

北上 學校評議員
林有樑

南上面茂村里
南上金鑛事務所

居昌邑 邑會議員
崔永塾

加祚面釀造場
代表者 權容燮

居昌邑 邑會議員
章東覲

加北面夢石里釀造場
主 趙秉來

居昌邑 邑會議員
李鉉徹

昌南金融組合

萬靈堂本舖

渭川面
渭川支所

渭東藥房主
愼鏞直

渭川面 學校評議員
鄭鍾洛

慶南居昌市場 海産物貿易商
永明商會
代表 李永根
電話二四番

熊陽面竹林里
愼判鳳

居昌邑
慶尙고무商會

熊陽釀造合名會社
代表社員 李鉉進

慶南陸運株式會社
居昌營業所
電話七一番

居昌金融組合
熊陽支所

南下面屯馬里釀造場
主 金俊榮

南下面屯馬里釀造場 學校評議員
申鉉鍾

渭川面東邊里
主 金淇先

神院面釀造場
主 金聲出

北上面釀造場
主 金達鎬

南上面釀造場
主 金聖培

南上面茂村里
主 吳宗賛

居昌印刷株式會社
支配人 金昌洙

海産物貿易商
大同商會
李和春

居昌邑東洞
泰昌材木店
主 鄭雲相

海産物貿易商
永昌商會
李萬春
電話一二番

居昌邑 邑會議員
尹聖奉

居昌精米所
電話三七番

昌南金融組合
理事 岡田義賢

居昌邑金泉洞 邑會議員
黃德元
電話五四番

居昌金融組合

居昌齒科醫院

居昌邑
中央印刷所

居昌邑
三和洋品店
電話五八番

居昌煙草耕作組合

熊陽郵便所

加北面釀造場
主 朴常圭

慶南自動車株式會社
居昌營業所

成昌材木店
黃庭憲

米穀商
共榮商會

北上面
林基見

加北面海印里
金昌來

居昌邑市場通
東亞婦人商會

馬利面大東里釀造場
主 姜禹洲

神院面九土里
金丙俊

神院面淸水里釀造場
主 郭泰燮

高梯面農山里
學校評議員 李洪雲

南下面屯馬里
同 面長 金井稧

渭川面場基里釀造場
愼球晟

永興

定平郡廣德面儒興里
御帶金山
鑛主 張潤壁

咸南永興邑
カフエー 白蘭

宣興釀造場
趙成龍
韓永俊

咸南永興邑內
高級洋服調製 既成服及附屬品販賣業
天一洋服店
主 劉永珍
電略（テンイチ）

朝鮮咸鏡南道永興邑
大豆 食鹽 其他 滿洲粟 細縄 叺 雜穀類 貿易
東亞貿易倉庫株式會社
電話五六番 電略（ト）又八（〇ア） 私書函永興第一四號

穀物貿易
咸鳳燮
電話二五番

永興教育團

咸南永興驛前
永興木材株式會社
取締役社長 趙鼎吉
專務取締役 尹成龍
電話二二番

橫川面事務所職員一同
耀德面事務所職員一同
宣興面事務所職員一同
長興面事務所職員一同
德興面事務所職員一同
順寧面事務所職員一同

啓礎社林業部
啓礎社木炭係
職員一同

永興郡宣興面龍臺里
金大鏞

永興公友會

永興
司法書士會

永興邑
精米業 穀物貿易 水利業 運送業 布木商
石命哲

永興郡順寧面興宗里
崔始綱

咸南永興本町通
皮類、藥草、穀物貿易
株式會社 三光商會
電話五七番

永興邑內
南山學院
職員一同

咸南永興邑
穀物貿易 精米業
徐鍊伯
電話三六番

咸鏡南道永興郡洪仁面南山里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永興支店

株式會社 近森組

宣興金融組合
職員一同

土木請負業
韓倞善

宣興郵便所長
金昊建

咸南大坪市
大興醫院
醫師 金鎭國

順寧面新亭里
朴瓚旭
朴相羲

高等料理
東興樓
電話五二番

順寧面岩里
金鍊珍

宣興面城里
三山購買組合

永興郡順寧面
金漢奎

橫川面太坪里
韓炳龜

咸南永興郡
宣興森林保護區
職員一同

面協議員
林南奎

橫川國有林保護組合
聯合會職員一同

永興本町通
布木商 李昌郁

永興郡德興森林保護區
吳永龜

穀物貿易
文昌洽

咸南大坪郵便所長
許雲

京城二二、四七四番
咸鏡南道永興郡橫川面大坪里
大同商店
金啓善

咸平

咸平郡新光面事務所
面長 金東旭
外職員一同

咸平郡廳
各種團體
職員一同

咸平軌道株式會社
咸平營業所 電話二七番
靈光營業所 電話三六番

咸平郡月也面事務所
面長外職員一同

咸平郡海保面事務所
面長外職員一同

咸平郡新光面白岩里
金亨龍

咸平郡大洞面事務所
面長外
職員一同

咸平面事務所
面長 李啓潤外
職員一同

咸平警察署長
加藤治右衛門
外職員一同

咸平郡鶴橋面事務所
面長 徐鍾瀚
外職員一同

咸平郡內各公立
學校職員一同

月也面禮德里
安鍾鉉

咸平邑
慶星醫院
閔泳星

咸平司法書士
聯合會

咸平邑內
孫昌殷

咸平郡嚴多面事務所
面長 朴亨和
外職員一同

咸平邑內
李載爀

咸平郡孫佛面事務所
面長外職員一同

咸平邑
回春堂藥房
主 丁宋奎

咸平郡孫佛面
合資會社 三養社
孫佛農場

黃潤

永昌醫院
醫師 曺永鎬

上村面湧村里
三黃鶴金山事務所
電略（ミコウ）又八（ミコ）

中牟市場
綢緞 布木 雜貨 肥料 官鹽 石油 食料各品
和信連鎖店
劉日成

綢緞 布木
開明商會
洪載植 洪範植 朴翊東 李成基

南城精米所
朴喜命

大陸商會
陸長龍
呂聖基

李鍾碩

文慶烈

上村面梳谷里
大一金山

朝鮮料理
逢春舘
主 李起亨

上村面林山里
半島醫院
洪日

上村面林山里
南基明

黃潤精米所

黃潤邑
權重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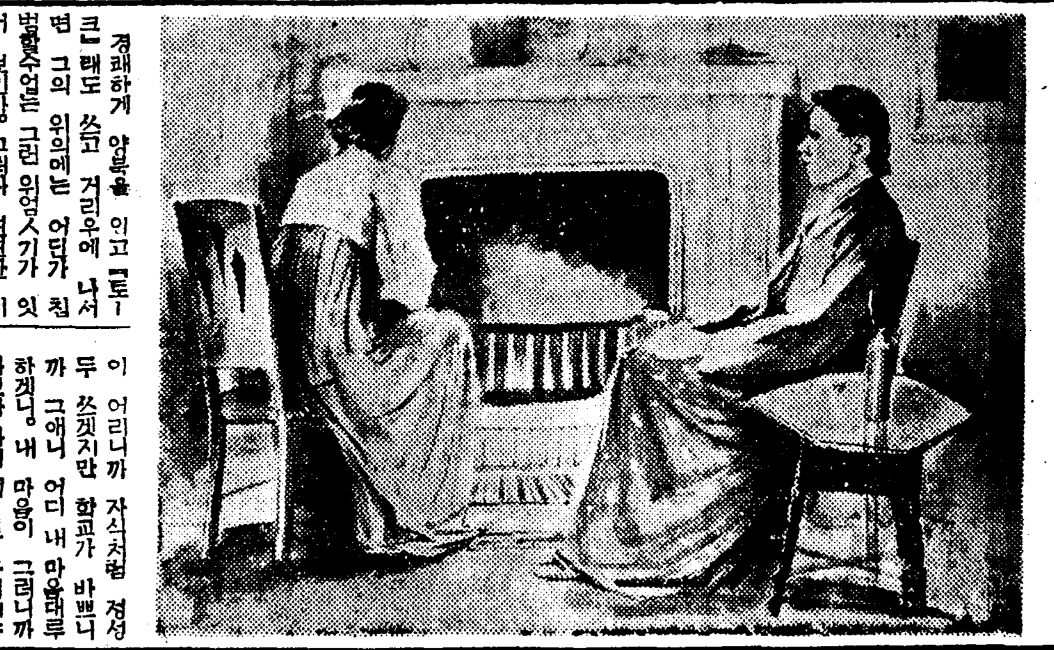
黃潤
呂煥珉

中牟市場

長篇小說

사랑의 水族館 (119)

金南天 作
鄭玄雄 畵



불고기의 恭賀新年(五)

경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잇슬까? — 그것을 은주는 딱이는 알지 못하엿다.

그러나 외지에 등을 기대채 몸고림이 하꼿을 혓눈 따뜻하고 안젓는 경히의 표정을큰은주는 그가 적지 안케 유직이기 쉬운 정서에 부딪혀 잇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잇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애정에서 격리되고 오빠와도 갈라진지 오래된 경히가 지금 아버지의 밖에 안자서 오래간만에 가족적인 애정을 회구해보고 느끼기 쉬운 처녀의 가슴에 가벼지 안흔애상을 품고 잇는것일테 틀림업다고—그의 서모 은주는 제깐으로 해석하고 잇는것이엇다.

어딘가 규칙을 하번 건드리기만 하여도 경히는 자기의감정을 유지하고 잇던 기둥이팔허버리고 그대로 우름시보를터처 노흘는지도 모른다.

경쾌하게 양복을 입고 「토-크」태도 쓰고 거리우에 나서면 그의 위의에는 어딘가 침범할수업는 그런 위엄스기가 잇서 보인당. 그러나 연연한 비단으로 우리 옷을 몸에 두른면 버선우에 갓기는 진 푸른치마의 정서처럼 그는 역시 빈틈잇는 아리따운 색씨에 지나지 안는다고— 이것이 그의 서모 은주의 판찰이당.

사실 은주는 양장한 경히를 대하면 어디서 오는것인지 알수업는 위압을 느끼어서 말가튼것도 순서 잇게 건는지를 못하는 저자신을 발견하곤 하엿당. 그러나 경히가 이러케 남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힌버선을 신으면 그것은 벌써 은주에게 잇서서는 하나의 어린애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것이당.

은주는 아무말도 하지 안코 경히의 감상적기분에 저 자신도 저저드는것 처럼 가끔 나직한 한숨을 집다가 이윽고 양주를 한잔 따라서 마신당.

「너두 한잔 하렴?」

경히는 머리를 흔든당.

「포도주래두 한모굼 마시렴」

경히는 가만이 안저잇당. 그는 포도주의 「그라스」를 끌라서 피처럼 붉은 포도주를 한잔 딸하서 경히의 아프로 가저갓당.

경히는 그것을 바다서 절반쯤 마시고는 눈을 찡그렷스나 다시 또 유리잔에 단정한 입술을 대이고 나머지 포도주를 다 드리키엿다.

은주는 잔을 바다서 잇던자리에 켜노코

「자식에 대한 애정이란건 우수운거다」

하고 나직이 이야기를 시작하엿다.

「내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마 그런걸 너이들두 생각할수 잇슬께다. 네 아페서 이런말 하는건 우수운 소리갓다마는 나처럼 불상한 사람은 업슬께다. 파거야 어찌되엇건 또 현재의 삶림은 호사스럽고 호화롭다 하지만 가지고나온 인정중에서 어머니로써 애정을 기우려 볼곳이 업다는건 불행중에서두 가장 큰 불행일다. 너이들은 내가 자식이라구 생각하기엔 너무 나이가 먹엇다. 되려 친구보다두 어렵게 생각된당 그리니 내 나이 인저 바 칭칩에 슬하에 애정을 기우려볼 혈육이 하나이나 잇니 데히래두 자주 차자오면 그앤 나이 어리니까 자식처럼 정성두 쓰겟지만 학교가 바쁘니까 그애니 어디 내 마음대루 하겟니.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먹으신 아버지야 더 말할게 무어냐 사업이 하두 바쁘셔서 집에 게시지 못하고 밤낫 여행과 연회루 보내시니 그러치, 가끔 시간을 타서 집에 게실때엔 늘 맘씀하시는게 그뿐이당. 이거 온 자식 두셋넷 되는게 모두 뿔뿔이 흐터저 잇스니…그러시군 거 온 당신은 애두하나 변변히 못 난는당……」

은주는 쓸쓸히 우섯당. 경히는 포도주로하여 나치 밝으레 하게 되어서 머리를 수그리고 침묵을 계속하고 잇슬뿐.

벌써 사위는 밤으로 접어들엇당. 그러나 은주는 방안의 분위기를 깨트려 버리지 안흐려고 적은 등을 하나 켜서 은은히 방안을 비치게 활발이엇당. 그리고는 다시 경히의 표정을 살피듯하고 이어서

「아버지는 요즘은 또 네 혼수걱정으로 적지 안케 심드하시는 가보더랑」

하고 말하엿다.

경히는 그 말을 듯고도 가만이 안젓스나 이윽고 머리를 약간 처드는듯 하엿당.

이러한 반응을보고 은주는다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잇는모양이다만은……」

하고 그다음은 말끝을 몽우려트리듯 히미하게 흐려버렷다.

群山

群山府昭和通二丁目 世昌醫院 院長 姜世馨 電話八二三番

群山府驛前 群山精肉配給組合

熊本農場 八木農場 大成農場 嶋谷農場

沃溝西部水利組合長 高漢珪

欠禮謹謝 朴相哲 群山府東榮町

群山布木商組合

喪中欠禮 李鍾勳 群山府開福町二丁目

全羅北道會議員 樋口虎三 盧競湜

群山新興酒造場 金敬燮 電話三六三番

群山府東濱町一ノ二七四 乾海各種海產貿易及委託 鮮滿洋行 主 金在炳

群山府昭和通 昭和酒造場 權泰亨 電話七二三番

沃溝郡守 趙春元

群山遊廓組合

群山府藏財町二二 京城護謨合資會社

群山金曜會 群山木曜會

群山府東濱町 群山新炭株式會社 社長 全義鎔 電話五九番

群山府

群山府東濱町 群山水產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全義鎔 電話五九番

群山商工會議員一同

群山府東榮町 群山●運送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全義鎔 電話六一四番

群山府會議員一同

康泳部

沃溝郡面友會

群山府榮町 古物商 朴今石

米穀貿易商 東興商會 群山府江戶町 電話四五八番

沃溝郡大野面地境里 金亨植

群山農機株式會社

群山府榮町 申鉉澤

回生藥房 梁在○

群山府 丁斗鉉

群山府榮町一ノ四 永信商會

共榮自轉車商會 李英林

沃溝郡大野面職員一同

全羅北道漁業組合聯合會 理事長 片山萬七 理事 中村一郎

群山府東濱町一丁目二八四 朴茂景

大野酒造場 主 李馹烈

群山昭和八馬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群山府開福町 金馨振

慶州

慶州郡廳 同郡農會 職員一同

迎日、竹長、立岩 立岩釀造場 權大洛

迎日郡神光面 李錫昶

財團法人 秀峯教育財團 理事長 李琛雨

慶州稅務署

慶州朝鮮酒酒造組合

慶州產業組合 職員一同

慶州商工會

慶州自動車株式會社

金丈釀造場

慶州邑職員一同

慶州內南酒造場 孫秉權

慶州醫友會

慶州警察署

慶尙合同銀行 慶州支店

慶北無盡株式會社 慶州出張所

慶州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崔肯

慶州邑公立初等學校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慶州出張

石窟庵 住持 金○吉

慶州邑 宿屋飲食店組合

迎日、竹長、立岩 金致雲商店

安康釀造株式會社

許澍寧

慶北安康 日浦廣治

安康市場通 各種乾魚果物 海山商店 主 金在文

迎日郡杞溪市場通 物產株式會社

迎日、杞溪、大谷 M、S、Y、N

慶州郡江西 權宅兆

安康金融組合 理事 李相璉

慶北安康 朴泰錫商店

江西面協議會員 李昺赫

江西警察官駐在所

慶州郡良洞水利組合 組合長 李鍚海

江西面協議會員 李洛熺

慶州郡江西 崔相鎬

慶州郡根溪 柳致佑

慶北安康 穀物商 金實景

安康金融組合 組合長 鄭○璟

慶北安康 綢緞布木 朴泰永商店

慶州郡川北面 毛兒酒造場

江西面長 黃修光

東海中部線安康驛前 一運送店 孫○昌

竹長面長 李天雨

迎日、竹長、立岩 國濟醫院

慶北安康 綢緞布木 李有式商店

慶北安康 綢緞布木 權大石商店

慶北安康 李相浩食料品店

迎日郡杞溪 面協議會員 崔冰倶

杞溪市場通 鄭斗商店

杞溪市場通 日用雜貨 鄭根澤商店

杞溪市場通 金○三

安康郵便所長 持田勇助

慶北安康 迎日旅館

江西面協議會員 朴相○

慶北安康 高等中華料理 長春館 李才南

江西面協議會員 金在曉

慶北安康 綢緞布木 李相勳商店

慶北安康 朴東植

清津

清津府北星町 仁谷商店 張秉澈 電話三四八四番

張錫鳳

鳳頭里

惠山線鳳頭里驛前 開城釀造株式會社 平安釀造株式會社 販賣店 穀物貿易 海陸物產 委託販賣 三興商會支店 李承烈 本店 惠山鎭本町

惠山線鳳頭里驛前 鳳頭警防團員一同

甲山郡雲興面龍岩里 木材請負業 李鉉淳

惠山線生長驛前 生長牧場

惠山線鳳頭里驛前 海陸物產委託販賣 商工運輸組 李金龍

惠山線鳳頭里驛前 一丸一運送店 主 崔亨奎

咸南甲山郡雲興面龍岩里 龍岩作業場 主任 三輪源一

惠山線鳳頭里驛前 面協議員 李雲行

惠山線鳳頭里驛前 金炳俊

惠山線鳳頭里驛前 土木請負業 俞承國

惠山線鳳頭里驛前 共興株式會社 鳳頭取扱所

惠山線鳳頭里驛前 鳳頭里 官公署一同

惠山線鳳頭里驛前 金成龍

惠山線鳳頭里驛前 食料品雜貨商 東園 主 鄭周峯

惠山線鳳頭里驛前 鄭奇三

惠山線鳳頭里驛前 鳳頭館

惠山線鳳頭里驛前 盧確奎

甲山郡雲興面龍岩里 布木商 李漢猷商店

甲山郡雲興面龍岩里 申鉉珏

甲山郡雲興面龍岩里 飲食料 金柄順商店

馬山

馬山府午東洞一五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 日本教育生命保險株式會社 馬山事務所 電話五六六番
事務所長 趙鏞周 書記 林釆完 書記 金鲁容
地方主任 許在權 同 鄭允容 同 河甲義
書記 趙鏞丞 同 朴小先 同 金南容
同 崔守英 同 李學奉 同 鄭賢直

馬山府壽町一六八ノ一 馬山自動車合資會社 百番タクシー 電話百番

馬山府石町 朴聖則

馬山府萬町一七三 藁莚雜貨材木直輸入 亞一商會 電話七二三番

馬山府城湖洞 金東碩

長津

咸南長津邑(下碣) 酒類 醬油 米穀 三益商會 主 韓秀現

咸鏡林業 下碣製材所 金龍先 金龍豐

長津郡學校費評議會員 中南面協議會員 林昌松

咸興タクシー株式會社 下碣營業所 電話十一番

中南面長 千世興

中南面協議會員 中南警防團團長 金信鳳

長津郡中南面泗水里 三榮商會 李永模

茂長

全北高敞郡茂長面玉山里 玉山堤堰新設工事場

全北高敞郡興德 陳興○場 全北道會議員 陳萬秀

全北高敞郡 大山金融組合 組合長 鄭世煥

高敞郡大山面山亭里 山亭堤堰新設工事場 現場代理人 氏家金市

高敞郡海里面下蓮里 松壕海里支店 主任 朴柱燦

財團法人 高敞中學校 理事 吳均誠

高敞郡孔音面七岩里 面協議員兼學校費評議員 朴性鑄

高敞郡茂長面玉山里 面協議員 金東玉

高敞郡茂長面德林里 面協議員 鄭鳳煥

全北高敞郡上下面長湖里 開南農場 李東熙

高敞郡邑內里 高敞產業組合

全北高敞郡上下面 面長 千翼男 外職員一同

高敞郡海里面 面長 金興泰 外職員一同

高敞郡孔音面 面長 李陽範 外職員一同

鎭安

朴春琴富貴鑛山事務所 職員一同

高敞郡大山面 面長 姜永昌 外職員一同

全北高敞郡 茂長文廟 直員 李宇燮

全北高敞郡心元面 面長 閔丙台 外職員一同

高敞郡茂長面茂長里 高敞砂防事業所 主任 金貞三郎 外職員一同

沈村

沈村郵便所 所長 池成俊

沈村金融組合職員一同

沈村 福盛農園 主 梁相福

沈村 三信商會 主 金斗俊

沈村 日成精米所 主 李炳俊

沈村 共信自轉車病院 主 金在仁

沈村 金成堂時計店 主任 明淳

黃海道沈村 飲食店料理業 主 鄭基寶

沈村 興亞旅館 主 李興植

沈村 李東官

黃州郡 黃州郡州南面事務所 面長 金商兼

黃州郡州南面 面長 趙斗成

黃州郡三田面事務所 職員一同

黃州面浦北里 金明喆

黃州面浦北里 三成

公立黃州郡州南面小學校校長 佐佐木貫吾

鳳山郡舍人面龍山 吳山農園 主 吳仁教

沈村 復興土木事上村事務所 上村龍吉

鎭安稅務署

時代日報鎭安支局

上田酒造場 朴榮兆

鎭安睦會

鎭安郡職員一同 鎭安郡各面職員一同 鎭安郡各學校 職員一同

陳坪

平北小中江 小中江普成學會 校長 張季愼 教員 吉應彬 學監 吉燦碩 財務 孫泰奎

平北陳坪市 有志 宋泰根

穀物貿易商 尹順敬

平北陳坪市 綿布商 李東根商店 主 李東根

平北陳坪市 綿布商 怡成隆

平北陳坪市 朝鮮料理業 相愛館 主 金尙穀

平北陳坪市 綿布商 義盛商會 主 李寅穀

平北陳坪市 有志 金基亭

平北陳坪市 穀物貿易商 姜信熙

晚興洞 有志 金炳青

平北陳坪市 綿布商 仁春盛

平北陳坪市 綿布商 德成號 主 曲丕善

陳坪市 綿布商 天興德

平北陳坪市 永吉商店 主 姜永叡

平北陳坪市 綿布商 華興號

平北陳坪市 支那料理屋 紀家館 主 紀殿之

平北陳坪市 綿布商 崔虎涉商店 主 崔虎涉

清安

沙梨面禾山里 區長 金泰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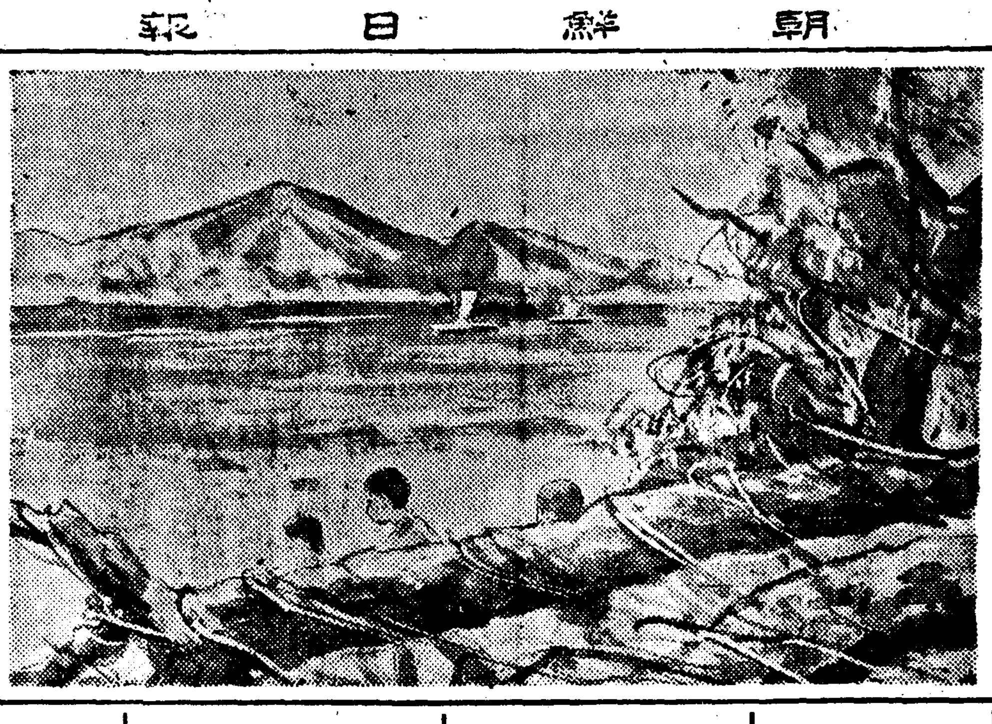
沙梨面禾山里 金升會

平北清安 永美寫眞館 李正○

二等　當選短篇小說

洪水(二)

金萬善 作
洪祐伯 畫



손녀 경희는 목을 옹조리드린다. 시신을 얼른 뒤ㅅ간 널판으로 떠러트리고 대답을 안는다. 그만 이러서고 시곤다 집 춧 더 꿍꿍 한다.

「얼른 가봐!」

「재 뒤나보거든 야단이난 검씨가 펀을 들어준다.

「읽기 가슴 데려오온」

「어덧든습 내가아온」

「어디긴 어디양. 놀 파무첫든 데겟지」

「설마 벌써부터 그럴라구. 그 놈들도 사람인데」

「홍! 설마……」

그러나 안해는 숨에다 옷을 넘기에 분주하다. 숨에 가득해 가는 옷들은 경희를 가려준다 살며시 일어난 경희는 검씨 할머니만 밋고 살금살금 대문으로 향한다. 그러나 문턱에 이르자 할아버지호령에 발이 딱 붓는다.

「가니?」

「……」

경희는 마음에 업는 대답을 고개로 한번 끄떡 한다.

대문을 나서 울타리를 끼고 언덕을 단숨에 내려간 경희는 뽕나무압 갈래길에 이르자 거름을 멈춘다. 아버지가 내려가든 길은 분명 아래ㅅ말로 통한 오른짝이다. 또한 아버지가 잇슬 곳도 집작에 틀리지 안을것 갓다. 쇠돌네집에 분명잇슬것이다.

그러나 경희는 몸을 돌려강변으로 통한 좁은 길을 곳 상달린다. 풀투성이가 된 오이바틀 지나고 호박바틀 지나 탁류속에 의숙지 못해 끌고루 자빠진 옥수수바틀 다 가, 수양버들아페 이르러숨을 돌린다. 강변길 중간에 의조케 가지를 끌어안은 두 버드나무는 알맛게 서늘한 그늘을 펴고 그아래에 조무래기들이 모혓다. 경희는 그늘속에 몸을 감추며 집을 헬끔돌아다 본다 뽕나무여프로 할아버지의 머리가 쓰러진 울타리위에서 어른거릴 뿐이다.

버드나무 상가지에는 쇠돌이가 걸터안저 가지에 걸린 고구마넝쿨을 떼어 휘저며 까불고 나무를 타지 못하는 남어지 조무래기들은 손을 처들고 목이 말라 조른다. 그러나 줄처럼 던저주지는안흐며

「아ー맛나!」

하고 감질만 복도다준다. 장마덕분에 수양버들을 타볼 엄서방의 고구마넝쿨도 마지막하나가놈의손에 요리가되어간다.

「날줘!」

경희도 손을 벌려본다. 헤실수룩이다. 그러나 뜻하지 안코 고구마 하나가 경희의 이마를 갈기고 땅에 떠러진다. 뜻고초만한 놈이다.

조무래기들은 와작 경희를밀치고 여러 손이 땅을 긁는다. 나무위에서는 눈을 부라린다.

「경희야, 경희!」

하지만 들ㅅ심들도 안는다. 게집애에 대한 대접도 좋아볼 여유가 업다. 끗끗내 한놈이모래고물을 무친채 입속으로 젤싸게 처너코 몸을 빼친다. 만족한 우숨까지 띄우며…….

「이자식 보자」

쇠돌이는 우선 별르만 두고 또 이리저리 넝쿨을 뒤진다. 하얌강이도 업다. 경희를 내려다 보고 미안한듯 승거운우숨을 지으며

「업다!」

하고 넝쿨을 노피 치던지고 내려올 자세를 취한다. 넝쿨은 찌진 노피서 재주를 넘고 가지에 걸려 춤을 춘다 경희의 고구마를 약탈한 놈이 먼저 강변으로 달나나고 쇠돌이가 잡으러 쫓고 그뒤를 한떼가쫓는다. 망서리든 경희도 쫓는다. 조금호꿈불거린 강변 언덕길에 조무래기들의 경주하는 모양이 베젓다 숨어버린다.

지영오는 쓰러진 울타리에기둥을 바꾸어대고 잇다. 기둥을 새로 세우고 울타리를당기어새끼로 바뿌게 얽어맨다. 그의마음은 초조하다. 그는뜻하지 안은 손문을 들엇다. 그 소문을 전하고간 사람들은 용궁당 제사에 쓸 떡쌀을거드러 왓던아태ㅅ말 사람들이다.

쌀 한보시기나 돈 십전한닙을 내노치 안코 용궁님을 저주하드란 엄서방에대한 그들의 비방은 오히려 동정을 갓게 한다. 생기는 곳이란 꾀배기 고구마밧만을 하눌가치 밋는 더에 반년농사가물과 사오일동안에 전멸이 되엇다. 엄서방이아니라도 그지경을 당햇스면 감사를 올리자는 이번 용궁당제사에 쌀한톨이라도 보탤 정성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 하여간 그리한것은 엄서방에서 한한 일이겟스나 또 한가지 떼목을 찻즈러 떼목주인이 나섯다는 소문은 이마에 피ㅅ대를 세우지 안흘수업다.

떼목을 찻즈러 다닌다니 뻔뻔스럽다. 위ㅅ강으로 부러 탁류속에 잠겨 흘르는 호러진떼목들을 보고만 지내쳣드면 어떠케 되엇슬 것인가. 그때는어디가 찾는다 말인가.

興南

水産業 上野安治郎

水産業 金奉鶴

咸南西湖津 水産業 李柱禎 電二七番

西湖津 水産業 魯悳煥 電話二二番

西湖津 西湖水産合資會社

西湖津 興南邑會議員 小原重威

咸南西湖津 水産業 有馬諭

咸南西湖津 竹原健一郎 喪中ニ付年頭ノ御挨拶御遠慮申上候

朝鮮料理 琴松閣 電話一一八番 藝妓 朴洞庭月 金峯花 沈春紅 金彩鳳 金蓮玉 沈悟姫 李敬子 崔香花 李桃花

西湖産業株式會社

東海水産株式會社 西湖支店

水産業 魯錫禧 電話二二番

咸南西湖津 公醫 李仁煥 電話五五番

興南驛前 製材業 小池商店 電話特一四番

興南金融組合 理事 大山富美 外職員一同

朝鮮咸南咸州郡興南 株式會社富田商會興南支店

新興鐵道株式會社 常務取締役 瀧儀三

興南警察署 署長 柳撤 外職員一同

興南邑

西湖津 水産業 村田村太郎

崔周星

內湖東振學院

興南邑新上里 朱鍾玉

朝鮮總督府出版教科用圖書販賣所 東文堂書店 咸南興南邑 電話四四〇番

咸南興南邑西湖津 興南商事倉庫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鳳善

興南本町二丁目 朝鮮料理 大成閣 主 金大鏞 電話三八番

朝鮮咸南西湖津港 吉興號

咸鏡線西湖津驛前 ㊄ 二友運輸組 鮮滿商會 電話長七〇番

興南松ケ枝町 料理屋組合

咸南西湖津 二盛商會 電話六一番

興南驛前 箕斗木材商會 金斗鏞 電話三六六番

興南邑九龍里 永興鑛業所 朴熙善 電話四一八番

西湖津 永興三峰漁場 韓連日

咸南西湖津 咸南商會 朴在洵 電話二九番

興南邑內湖 料理業 東洋館 電話一三四番

興南邑松ケ枝町 興南牧場 佐野藤五郎 電話一一七番

興南邑天機里 濟惠醫院 電話二〇六番

京城煉瓦興南出張所

內湖東振學院 院長 徐斗淵

興南邑九龍里 毛利醫院 毛利麒聖

興南邑松ケ枝町 咸新館興南支店 電話一五四番

興南邑松ケ枝町 君乃家 上野敬次郎 電話二〇九番

壽東醫院 文錫增

李晙秀

興南松ケ枝町 浪花亭 淺田重次郎 電話四二〇番

興南本町 日鮮木工所 盧鳳朝

咸南西湖津驛前 海陸物産委託貿易 中央商會 電話特一一〇番 電略(안)又八(マルナカ)

興南驛前 鈴木商店

西湖釀酒合資會社 電話一八番

興南驛前 興南時計店

西湖津 米穀商 高壯國商店 電話二二四番

鮮一商會 電話特五九番 電略(セン)又八(선一)

西湖津 水産業 村田三之助

興南邑九龍里 安興商店 申應閏

株式會社 東一銀行 興南支店

興南邑內湖市場 洪在善商店

興南邑內湖 青海商店 全松均

マルビル帽子店 劉在根 電特三一五番

興南驛前 中央寫眞館

金永淑

咸南興南邑本町二丁目 三和海運商會 文、冕朝

新築開業 客室二十餘室 中央旅館 興南驛前 電話三六一番

興南邑雲城里四四 金豊善

興南邑榮町 咸平商店 崔仁善

西湖漁業組合

興南商工會 會長 速水源治

井上惣太郎

興南邑內湖 德成商會 安容夏 電話一〇九番

李昌連

咸南咸州郡興南邑 仁興商店 主 成祥鎬 振替京城一九八〇六番

興南 劉吉鎬

西湖津 大興麵屋

咸興タクシー株式會社 興南營業所

興南郵便局 職員一同

興南邑松上里 昭和館 電話二〇七番

興南邑九龍里 富松商店 黃秉奎 電話四三五番

元山商會

興南邑內湖 東星寫眞館 金東成

興南邑內湖 永興精米所 電話三一三番

光陽

光陽郡廳 (電話四番)

光陽地方食糧配給統制組合

各國ミシン附屬品一切 シンガー中古品販賣取扱店 金龍三

光陽面事務所 鳳岡面事務所 玉龍面事務所 骨若面事務所 職員一同

光陽酒造場 金錫柱 玉龍酒造場 李鎔唆 馬洞酒造場 朴炫甲 玉谷酒造場 柳浣秀 蟾居酒造場 徐希洙

光陽邑內 光明商會 鄭德龍 肥料米穀 孔國元 石井農場 李文華 大成商會 朴準晟

光陽邑內 湖南木工場 朱必彦 中央木工場 金圭善 丸山木工場 朴鳳來

光陽郵便所長 前田成夫 光陽西小學校長 藤田一義 光陽營林署主任 清水憲造

光陽郡各公立小學校長一同

光陽警察署 (電話二六番)

大濟堂藥房

光陽金融組合 職員一同

光一商店 主 安正涉

全南金鑛事務所 朴貞根

全南光陽邑內 第一藥房 主 金鳳五

全南光陽邑內 日用食料雜貨 御小賣商 安基贊商店 振替釜山六八三九番 電話二四番

各種紙物卸散賣 光陽紙物舖 主 李允哲

光陽邑內 南鮮洋服店 主 鄭興烈

三井生命代理店 金正錫

全南光陽邑南門通 光雲商店 金善仲

大榮自轉車商店 主 全仲洙

湖南堂製藥所 主 金志煥

福光堂印刷所 主 李達周

光陽トラック荷扱所

東亞商店 主 金銅元

光陽邑內 明信商會 主 崔泰祚

光陽邑內 ゴム靴卸散賣 張泳鎬商店

雲山館 丁蓮心 李花仙

和洋菓子製造 光玉堂製藥店 主 鄭國植

光陽郡邑內 古物商 朴又文

釜山マルサン海運合資會社 光陽代理店主 金贊洙

新浦

朝鮮運送株式會社 新浦運送株式會社 新浦代行營業所 取締役社長 安炳仁 電話四一 振替京城一七三七

咸南新浦邑 海産物 雜貨 草繩 新聞 保險 三星商會 電話一二三番 振替京城一二七八一五

新浦邑 大洋商會 安炳仁 電話一〇二

咸南新浦邑六台里 六台水産工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珍基 專務取締役 朴永錫

新浦邑 ミナト會館 (藝名スターカフエ)

新浦邑 崔秉珠商店 電話一一六番

新浦邑 啓林商會 俞一英 電話五一

朝鮮東海鰮巾着漁業水産組合新浦支部

高級料理 漢陽食堂 主 尹玉熙

新浦邑 カフエカツラ

新浦邑 吉田洋服店 朴昇吉

咸新館本店 支店

新浦驛前 東洋通運合名會社 電話六九番 振替二五五八九番

咸南新浦邑 咸南水産會 職員 金鍾祐 電話三六番

松汀

松汀西部酒造場 河南酒造場 東谷酒造場

雙合盛 電三二番

東谷面職員一同

西倉面職員一同

松汀邑 梁永日

長岡薄荷

松汀里工場

牛皮商 仲買 趙長玉

井邑旅館 金貫吉

大昌精米所 電一一三

本良面水利組合

西倉面 朴正順

三天商會

松汀邑本町 米穀商 裵在潤

松汀勤勞組合運輸部

山陽自轉車商會 黃河永

鳳凰洋靴店 主 朴仁

松汀驛前 任秉鉉

燃料商 李榮泰 電一二番

西倉面職員一同

三光製藥所 主 李萬吉

東榮發動機商會

松月旅館

長箭

東海北部線猪津驛前
猪津金山
鑛主 李鏞周
探鑛係 井出新作
李秀乙
姜承默
許順相
金龍出
李東鑛
洪泰健
李一淑
閔昌奎
火藥係 崔善旭
鄭道順
木材係 姜燦燁
測量係 韓義根

朝鮮東海鰛巾着網漁業水産組合
組合長 佐佐木準三郎
副組合長 天野郡治
理事 吉田重治

十日會
朝鮮油脂長箭營業所
林兼商店長箭營業所
朝鮮漁糧長箭工場
朝鮮運送長箭出張所

道會議員 黃雲天

天野郡治

長箭邑

江原道立長箭醫院
河上巖外一同

長箭漁業組合

朝鮮協同海運株式會社

東海産業株式會社

長箭酒造株式會社

咸一醫院
醫師 咸錫玖

濟東醫院
醫師 崔圭河

本田米市

崔永福

崔燦鉉

金斗益

李相鎬

岡田村市

朝鮮料理 山海館

朝鮮料理 剛山館
藝妓一同

長箭鰯油肥製造業組合
組合長 津田梅一
理事 廣田敬一
江原道高城郡長箭邑

裵相孝

朴基敦商店
長箭事務所
電話一三五番

津百貨品 海信洋品店
主 韓官禧
電話一〇九番

日光商店
在律
電話四九番

永和商會

光成堂藥房
李鉉
電話一〇〇番

莞島

莞島港 海産商 金商奭

莞島港 精一印刷所
朴昌順

莞島港 莞島業栄會

莞島港 海産商 互和商會
朴善吉

莞島港 金正善

莞島港 和洋食料品商 崔銀同

莞島港 布木商 申柄國

莞島港 仁壽堂藥房
李鍾

莞島港 和洋雜貨 阿部支店
主 金慶石

吉林

滿洲國吉林市大馬路
吉林金融會
電二八四九 二四七二

滿洲國吉林市六經路
吉林產業株式會社
電話

滿洲國吉林市迎恩町迎恩街二五
吉林商工株式會社
電話 二八九一 三五一六 二八一九

滿洲國吉林市提法司街
綢緞布木 ゴム靴
和信洋行
主 吳鍾泰
電二四〇六番

滿洲國吉林市福興里
新興旅館
白源龜
電話三六一六番

滿洲國吉林市福興里第三十二號
吉林朝鮮人飲食店組合
電話三六〇五番

滿洲國吉林市福興里
朝鮮料理 花月館
主 朴宗盛
電話三六七八番

吉林市五經路
綢緞布疋 化粧物品 和洋雜貨
東亞洋行
電話四〇三五番
支店 奉吉線口前驛前

滿洲國吉林市蓮花泡十七號
割箸折箱 製造販賣
共榮工業社
電話二四三三番
振替新京三二三二番

滿洲國吉林省永吉縣江密峯交易場
文洪圭

滿洲國吉林省永吉縣第五區大綏河
大綏河農務稧
稧長 洪義鎬
理事 金鍾一

滿洲國吉林省永吉縣第七區官馬山
金洪冑

滿洲國吉林市
永昌商會
電話二八九〇番

滿洲國吉林市大馬路一六六號
華東精米所
河山毛織社
大林商會
電話三〇五一番

滿洲國吉林市提法司街
內科外科 小兒科婦人科
天一醫院
院長 盧明烋
電話三九二一

滿洲國吉林市提法司街二〇號
高級紳士服 婦人服及協和服
中本洋服店
電話二六五六

滿洲國吉林市河南街三號
吉興洋服店
電話三九一一
電略ヨシヌハウ

滿洲國吉林市福興里
綢緞布木 日用雜貨 海産物
松林昌洋行
主 鄭相熙

滿洲國吉林市大馬路永康里
折箱 割箸
新廣商會
主 任洛秀
電話三二九三番

滿洲國吉林市八經路
海産物 各種雜貨
信成商店
主 朴奉來

滿洲國吉林市鉅房胡同
農具製作販賣
農友鐵工所

滿洲國吉林市大馬路
富士號代理店
吉林自轉車商會
主 林容煥
電話三九五六番

滿洲國吉林市三經路
大陸農機公司
販賣部 吉林提法司街
修繕部 吉林六條路
電話二六七七
振替新京九九七

滿洲國吉林市臨江門外
泰昌當
主 金鳳林
電三五七三番

滿洲國吉林市三經路二五號
京城旅館
主 李熙天

滿洲國吉林市 一七號
吉林旅館
主 權泰亨

滿洲國吉林市三經路二七
漢城旅館
主 張澤祚
電話三九二七

滿洲國吉林市福興里
鳳山旅館
主 朴廷建

滿洲國吉林市大馬路
ラーチ エルジン 日滿號
日滿洋行
電話三九四二

滿洲國吉林市六經路五十號
甲種料理 半島春

滿洲國吉林市八經路
朝鮮料理 食道園

滿洲國吉林市福興里
朝鮮甲種料理 滿鮮館
電話三七九一番

滿洲國吉林市三經路二二號
아리랑館
主 朴壽龍

滿洲國吉林省永吉縣
大屯村泡子沿
金炳河

滿洲國吉林省
永吉縣五區大綏河
尹寬基

滿洲國吉林市七經路
和信旅館
電話三四九一番

滿洲國吉林市提法司街
綢緞布木 洋品雜貨
同榮商會
代表 白洛俊

滿洲國吉林市提法司街
松江理髮舘

滿洲國吉林市福興里
農信號

滿洲國吉林市七經路一七
滿山旅館
金李紀
電話二六二九

滿洲國吉林市三經路胡同七號
京城下宿
主 李昌圭

滿洲國吉林市胡同十二號
協和下宿
主 南順台

滿洲國吉林市福興里
平南下宿
鄭鎬淳

滿洲國吉林市福興里七八號
新京國食堂
主 金長周
電二九四八番

滿洲國吉林市福興里
朝鮮料理 國一舘
電話三七九一番

滿洲國吉林市福興里
甲種料理 義州舘
主 嚴致祚

滿洲國吉林省
永吉縣第一區大屯村
黃正根

滿洲國吉林省
永吉縣大屯村哈達灣屯
崔基淳
崔廷淳

滿洲國吉林省
永吉縣第二區大屯村
辛鍾洪
辛錬弘

滿洲國吉林省
永吉縣大屯村泡子沿屯
泡子沿農務稧
稧長 李錫英
理事 俞錫濬

滿洲國吉林省永吉縣大屯村大屯
食料雜貨 永豐號
主 崔慶鉉

滿洲國吉林省
永吉縣大屯村哈達灣屯
哈達灣農務稧
稧長 俞喆濬

滿洲國吉林省
永吉縣大屯村主供街
孫慶宣
孫亭禹

滿洲國吉林省
永吉縣岔路河文化街
永吉齒科院
洪鳳喆

滿洲國吉林省永吉縣岔路河
東三旅舘
主 朴民玉

河東

河東寫友會

河東郡廳

河東警察署

河東稅務署

河東朝鮮酒酒造組合

河東邑

古田面事務所
職員一同

河東郡教育會
椛島關雄

河東邑 邑會議員
崔祥旭

株式會社慶南合同銀行河東支店
支配人 余璟燁

花開雙磎寺
住持 申奉淑

大松里酒造場
朴南鍾

河東邑本町
各種賣藥 高級化粧品 染料 塗料
天光堂藥房
電話八番

花開面
職員一同

大邱地方專賣局
河東出張所職員一同

河東郵便所長
萱島德衛門

赤良面事務所
職員一同

岳陽濁酒株式會社
社長 李駿儀

花開面塔里醸造場
河炳基

雙磎寺河東布教所
布教師 尹基元
監院 金德龍

安州

安州邑 中馬美彦

花園面 金容鉉

安州面 金貴鎔

金秉奎

三和鑛業所
金浚相

安州郡雲谷面龍林里
三和鑛業所
金椿億

安州郡雲谷面龍林里
錢山金鑛事務所
梁鎭煥

平安南道安州邑
無名會

安州邑元頭浦
材木商 瑞熏商會
振替口座京城貳貳六〇貳番
支店 安州邑內 新安州驛前 价川驛前 博川驛前 滿浦驛前 西平壤驛前

安州邑滄橋里
海産物食料品 問屋
大昌號
主 金振聲

安州天主教會
朴神父

安州金融組合長
李寬淳

安州邑七星里
平安旅館
方鳳德

安州邑內
久田茂壽

朝鮮安州邑
合名會社 藤村商店
振替京城一三〇六番

平南安州邑內七星里
平安醬油釀造場

安州邑內
維新書館

安州淸南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月星商會製材所
崔載晃
電話一〇番

安州邑七星里
李榮祥

金厚權

花園面 鄭秉基

鄭在東

鄭德鎔

榮山浦

旺谷面 鳳旺金鑛事務所
公山面 南城金鑛事務所

新北面
鳳凰面
旺谷面
洞江面

細枝面
公山面

榮山浦邑
萬德舘
榮樂舘

榮山浦邑
カフェ 興亞
主 李圭祥

道會議員
崔榮哲

公醫
崔翼鴻

羅州地方食糧配給統制組合
榮山浦米穀商組合
同業組合

榮山浦邑會議員
羅仲儀
金奉祺
金東赫

榮山浦邑
李正根
金明圭
金舜模

榮山浦邑
大塚市部
吉田啓之輔

全南自動車株式會社
社長 坂本由一

鳳凰面 權寶圭 鄭鳳午

鳳凰面 徐桂洙 權炳錫

鳳凰面 吳達相
多侍面 林潤澤

細枝面 李仁來 朴恢奎

細枝面 李敎洌 韓五奉

細枝面 康東立 申公淑

細枝面 金羅九
旺谷面 黃龍基

洞江面 裵中欠禮 朴鎭石

三陟

江原道三陟邑
三省醫院
公醫 秋淙燁
電話十七番
小野田セメント三陟工場
江原道土木課汀羅派出所
囑託醫

三陟邑汀羅津
三陟油肥製造業組合

三陟邑南陽里
木材商 鄭斗星

三陟邑
教科書及校服指定販賣
丸一百貨店
主 崔善在

東鮮物產株式會社

三陟郡北坪市
鄭健和
白雲基

三陟邑
三光醫院
醫師 鄭海碩
電話十八番

貨物自動車部
三陟營業所
李鍾化

江原道三陟邑汀下里
三陟水産會社
取締役社長 金龍淳

三陟郡三陟邑校里六五九
江陵電氣株式會社
三陟出張所

旺谷面 梁在斗 柳永仁

旺谷面 潘川卯之助 細田平

旺谷面 李完基 李吉用

公山面 羅道彰 全明洙 尹良重

公山面 金東默 黃義泰

公山面 李載煥 金相洙

公山面 金鍚培 金容圭 金鳳培

洞江面 林栢 李宰魯

洞江面 朴福煥 崔萬化

撫順

撫順市千金大街一三番地
朝鮮料理 青松
朱敬烈

撫順市西一番町五番地
撫順麵店
金興大
電話二八〇五番

撫順市東一條通二三番地
慶尙屋
徐昶敦

撫順市千金大街
自轉車販賣 修理 電池
秀山自轉車店
李秀峯
電話五〇一〇番

撫順市西條通三三
平壤舘
金得鳳

撫順市
主任 尹永奎

丹城

山淸郡丹城面
曺寅生

山淸郡三壯面
崔錠秀

山淸郡矢川面
吳壽周

山淸郡矢川面
金照喆

中部版

小作人에施米
宇賀茂樹氏特志

【富川】부천군소사면중동리(素砂面中洞里)송본농장(松本農場)의우하무수(宇賀茂樹)씨는 일본농리 사 소작인에게 백미오석을배부하야 어려운소작인들에 따뜻하게하엿다 전기우하씨의 [illegible] 대하야 부근에서는 칭송이 자자하다

退職轉業者續出
富川土地景氣의反響
面書記가뿌로ー카로

【富川】부평평야의 땅갑시 날로공회경기를 보이게되자 이에 부천군내의 각면소에는 면서기들까지 멧해동안 근속하여 사무의 능률이올만하자 어느곳에 무슨공장이 진출하게 된다는것을 알게되면 그것을 기회로여기고 사오변동안 박봉생활을하다가 토지거간으로만 나서서 모조리 사직원을 제출하고 무허가토지거간으로 행세를 하면서 일확천금의 단꿈을 꾸고잇다 이에 부천군당국에서는요즘와서는 굽지그대로 인허자원부족에 봉착하여 될수잇는대로 월급을 올리고 심지어 종전업더레로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도 사령장까지 받지안코 토지거간으로만 몰두하고잇서 부천군당국의 사무상에대한 영향을 미치고잇서 일반은이에대한비편이자자하고하다

열석, 서장훈지, 황국신민서사제송, 단기에경례, 국기강하, 만세봉창등 순서에따라 오후두시반에 폐회하고 오후에는 별다른장에서 성대한연회가 잇섯는데 일반은 흥미잇게 하로를지내다

土地景氣에달뜨는
無許可居間嚴調
仁川署의取締陣强化

【仁川】경인도시계획과 아울러 부평평야가 공장지구로 결정이된이후로는 경성인천사이의 토지열은 날로 팽창하여 땅갑시 변동은 놀랄만큼 뛰어서 부평평야에는 평당 배원대를 부른것은 옛이야기처럼되엇다 작금에와서 평당일백오십원대를 부르는 토지경기로 팔미아마 경인간의 각농촌에서는 농민들까지 본업인 농사를 방기하고토지거판으로만 나서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농사를 등한시하게되어 금년봄에 먹을보리바러거름을 하지안허 맥작의 수확에 막대한 영향을 밧고잇다 이에 인천서에서는 그들농민을 이대로 두어서는 부천군농촌에 자미롭지못한 폐해가 날로이러날터이므로 그취체진을 강화시키기위하야 지난구일오전에는 부천군내의 각주재소순사와 부내각파출소순사를 소집하고 아프로는 인천서에서 허가한 토지거판외에는 무허가 토지거판은 용서업시 엄벌토록 지시하엿다 집대문을열고 들어가서 문간오약간에 매여둔 시까이백원에해당한 황소한마리를 도적해다가 강화(江華)조시장으로 끌고가 팔어가지고는 엽채조케 다시동리로도라와 모른체하고 살려다가 지난구일 개성서 형사대에게사실이발각되어체포되어 목하엄중취조를밧고잇다

開城에牛賊

【開城】개풍군봉동면지금리(鳳東面芝金里)오백오십일번지 상귀성(尙貴成)(二八)이란자는 지난달 이십이일 새벽여섯시경 동리일백이십팔번지 박영래(朴永來)의

永登浦開拓者
竹原氏의義擧

【永登浦】부내영등포정축원초장(竹原初藏)씨는 명치삼십구년월 영등포에온이래 삼십오변간을 학교조합의원 면협의원 읍회의원기타여러공직을가지고 지방발전상 만흔공헌을끼치어 일반에경모를받든중 금번제반사업을 청산하고 여생을 고향인 산구현대도군(山口縣大島郡)에서 보내기로하고 오는십사오일경 출발을압두고서 다음과가튼 기부를 사회각방면에하엿다

一金百圓也 永登浦神社營繕費로 一金百圓也 本派本願寺光明寺에 一金百圓也 在鄕軍人永登浦分會에 一金百圓也 永登浦小學校後援會에 一金百圓也 永登浦文[illegible]으로

東部中部聯合
警防團始式盛大

【新長】소화십오년 경방시식을 지난팔일 오후하시부터 동부공립심상소학교교정에서 동부경방단원 오십명과 중부경방단원삽십명을 연합하여 망수경찰서장지좌(池坐)씨를 비롯하여 지방유지관민다수의 참석미테 국기게양, 국가봉창, 궁성요배, 묵도영지봉독, 단기에경례, 전열, 분

路上遊戲를團束
家庭과學校와警察에서協力

【仁川】인천서에서는 지난구일부터 부내각파출소에 공문을보내그 요즈냠씨가 치워지자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팽이를돌리고 어름지치기등으로 도로에서 유희가심하여 교통정리상 막대한지장이 생기니 이를적극적방지토록 노력하라고하엿다 그리고각가정에서도 어린이의 도로상유희를 단속하여 도로취체상 만전을 기하도록 부모들의각별한 주의를바란다 그리고 각소학교가방학중이므로 소학교아동들의 도로유희가만흐데 각학교에 대해서는 소집일에 당이선생이 각별한주의를 시키도록하고잇다

巨量의京城府民
年末에肉類와生鮮의消費量激增

지난 섯달한달동안에 칠십오만경성부민이 업새인 육류와 생선은 얼마나되나―경성부현업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소이천팔백오십이두(頭)도야지 일천구백이십삼두 말 십사두 양을두 합계사천칠백구십칠두이다 그리고 생선은 십팔만사천이백삼십칠관(경성부중앙사매시장)이 다 이것을 하로평균으로 따저 보면 하루에 경성부민은 소아홉두마리, 도야지예순두마리, 생선은 유천팔백이나 먹어업새인세움이다

▽ 철맛난滑氷場 △

十八日開城座에서
新人歌手選拔會
本社開城支局後援으로

【開城】개성에는 예술적천분을 타고난 음악가가 만흐나 불행히 사회적대우가 너무냉정해서 그들의 재분과정렬을랑비하며 실업゛룸펜゛군으로떠돌게되고만다 가수(歌人)을 불우한입장에서 구해가지고 그들의 숨은천분을세상에 널리 소개하는동시에 히망하는 예술의길로진출시켜 주기위하여 이번 전조선신인가수동호회(全朝鮮新人歌手同好會)에서는 본보개성지국후원아래 「신인가수선발대회」(新人歌手選拔大會)를 개최키로되엇다 이처럼뜻기픈모임을오는 십팔일오후일시 개성좌(開城座)에서 개최한다는바뜻잇는청년은 다음규정을 보고만히 신입해주기를 바란다

▲申込期日 一月十三日까지 ▲申込場所 松文堂及開城樂社院▲申込金 三圓▲申込資格男女十五歲以上▲曲目 指定曲自由曲各一曲式▲審査委員日本포리도-루文藝部▲賞品大會賞狀及歌手同好會員資格證歌手로決定

志願兵座談會
仁川署主催로開催

【仁川】인천서경무(警務)계에서는 작년이 제일선에나서서 혁혁한무훈을세우고 귀환한 지원병을초청하여 동서관내인 부천군각처에서 지원병과 지원병가족과 경방단원들을모아서 좌담회를 열기로되엇다는바 그좌담회의날자와장소는 다음과갓다

一月二十五日午後一時 文鶴小學校講堂
一月二十六日午後一時 素砂小學校講堂
一月二十七日午後一時 富平小學校講堂

安城警防團始式

【安城】안성경방단에서는 지난팔일오전구시반부터 안성공립보통학교(?)강당에서 [illegible]

"아버지를차저주"
開城署에少女가泣訴
自殺할嫌疑가濃厚하여焦慮

【開城】지난구일 개성서보안계에는 아버지를차저달라고 눈물로써 애원하는여성이 나타낫다 그는부내 고려정(高麗町)칠백사십오번지 송금숙(宋金淑)(一六)이란 소녀로 그의아버지 송순조(宋順祚)(五五)는 바로지난정월 초이튿날새벽 여섯시삼십분경 집에서 잠든틈에무단출가하여 아직까지 종무소식이라는데 그는 항상세상을 비관하던 나머지에 무신놈 신엇다한다 [illegible]

仁川警防團
出初式盛大

【仁川】인천경방단의 출초식은 [illegible]

地方人事

▲中村源三郎氏(開城少年刑務所看守長) 新任人事次本社開城支局來訪
▲白南薰氏(開城稅務署間稅課長) 同上

開城府內서도
痘瘡防疫鐵壁陣
昨日부터臨時種痘

【開城】함경남도에 발생한두창은 점점맹렬한위력을보혀 현재환자수는 오백삼십이명의 다수에달하고 사망자도 이백명이란참화를 나타내게되엇다 그런데 이전염병균은 개성과 인접지인 장단 임진강(臨津江)연안과, 개풍군봉동면(開豐郡鳳東面)까지습래하여 지성환자의발생을 보게되엇다 따라 이번개성서와 개성부에서는 절대방역진에 암뎌 을 보하기위해서 다음과가치날자를정해 각정민에게 임시종두를 시행하게 되엇다는바 부민은하시랄도 빠지지 말고 종두를 시행키바란다고한다

▲一月九日=社稷町 太平町 南山町 西本町(於社會館) ▲二月十日(南本町 大和町 京町, 高町(於高麗靑年會館) ▲一月十一日=黃金町德岩町元町 東本町(於高麗靑年會館) ▲一月十二日=滿月町 池町 北本町雲鶴町 高麗町(於高麗靑年會館)

仁川署職員들
表彰式을擧行

【仁川】인천서에서는 지난구일 오전열시에 동서호수실에서 서원으로서 삼년이상으로변함업시 근무서적의 표창식을거행하엿다 그리고 근무성적우량자표창식도함께 거행하엿다 그런데 상장을 바든사람들의씨명은 아래와갓다

精勤者 五年 ▲朴聖鎬▲高須德治 三年 ▲佐藤信一▲和齊光春 佐佐木貞雄 ▲李容晳▲權五烈 勤務成績優良者 ▲一等花坂武男 ▲二等李根春 ▲三等金振國 ▲四等李基鎭▲五等 金明煥 ▲六等 權丙衡 ▲七等 吳世元 ▲八等 李朝旭 ▲九等 丸本善六郎 ▲十等 川畑重雄 ▲十一等 齋藤正孝

押海島砂金採取
來四月부터着手

【全南支社發】당국의 산금장려에 발마추어조선전지는 수년래 일확천금열이 팽창하고잇는데오래전부터 다도해(多島海)의 사금(砂金)을출원한 이연(李硏)에서는 그간목포(木浦)에다 사무소를두고 무안군압해면(務安郡押海面)바다속에 채금작업을 준비중이던바 오는사월부터 소요노동자 삼천여명으로서 본격적사금채취를 할터이라한다 이로인하여 인해지이재민들의 구제사업이되리라하며 일반의기대는자못크다고한다

竹籌製造講習會

【晉州】경남산림회 진양군지부(慶南山林會晉陽郡支部)에서는금년에에대비(竹籌)이만본을만드러만주국(滿洲國)에수출하고저 오는십이일 십삼일양일간 진주상공회의소(晉州商工會議所)에서서 기록(紀錄)군기수를 강사로대비제조강습회(竹籌製造講習會)를개최한다고한다

人生에의赤信號
男子가四十이면
精力의凋落期이다

天地는 悠久無限하야 萬古不變이엇마는 이내몸은 한번가면 다시 오지못하는지라 靑春의歡喜를 그누가 조타 하겟스며 早老의悲哀를 그누가 실타하겟스리요 男子가 四十前後이면 精力이 絶倫하고 元氣가 旺盛하야 抱負雄偉과 外事內事가 至今부터라 하겟슴으로 總能을發揮하며 總歡樂을다하는 人生의爛熟期라하겟거늘 靑春의 酷使로 生理機能에障害를 이르키어 早漏, 陰萎, 遺精, 夢精의症狀으로 內事의滋味를 모르고 沙漠과가튼 人生이된다면 그얼마나 애가탈것이며 情熱의濫費로 極度의 神經衰弱에 걸려 頭重, 眩暈, 不眠, 虛弱으로 全身에倦怠와 疲勞를느끼며 後半生이無爲無能해저서 外事에 失敗만한다면 이또한 기막힐일이아니랴!

早老해지는原因

年齡이七八十의高齡이면서도 精力과陽氣가旺盛하야 절문사람못지안케 자지내며 子女까지 어든사람이잇는가하면 한편에는 그와反對로 不自然老衰인早老로因하여 不過四五十에 그만虛陽無精해서 아직도 前途遼遠한後半生을 悲嘆으로 보내는 사람이 이世上에는 얼마든지잇다
그러데 이不自然의老衰인早老를 防止하려는根本原理가 生殖腺內分泌機能의(性호르몬) 作用研究의完成과同時에明白해저서 사람은 年齡이만허저서 늙는것이아니고 生殖腺內分泌機能(性호르몬)이 減退하여 生殖能이衰해지면 年齡에는無關係로 二三十台의靑年일지라도 老衰해진다는것이判明되엇다
即生殖腺內分泌機能(性호르몬)作用이旺盛하면 六十이나七十이되어도 決코老衰치안으며 精力과陽氣가絶倫하기때문에 언제까지든지 靑春을누릴수잇다는것이證明되엇다

早漏가그만낫게되어
(京城) 郭俊陽
어디한군데 알른곳업는 健壯한 體質이오나 엇전까닭인지 여러해를 早漏로呻吟하며 不快한생활을하야 지내던바이엇습니다 그리하와 邪惡만하옵던中 貴堂의回春劑인「킹구」十圓分一瓶을 服用한것이機會로 그만낫게되고보니 發明하신뜻 太陽十鍾深에不已하온바이오며 男子에게는 第一必要한 어진良藥이라고 기뻐하는同時에 그런藥을 販賣하시는 貴堂에게도고맙게생각하오며 十圓分도先金注文합니다

몹시애타는病을곳처
(釜山) 李逢春
病도病가지안흔것이 애마태우든것은 아마陰萎症일것입니다 老生이 이陰萎로 남에게 말도못하고 혼자속을태워왓사오며 옥이 百藥이無効하여 기가막혀하기를 마지안핫습니다 그러든것을 友人의 알림으로 貴堂의『킹구』를服用하고 完快되고 보니 前에寂寂이 지내든것이꿈과갓사오며 驚異돋는効果에 一瓶二瓶하엿습니다 今番도 十圓分二瓶二人分을 共同注文합니다

萬事를解決해준다

男子는以上 相當한老境에達한몸이라할지라도 靑春時代와가튼 精力으로 靑日의懷情을다시차지려하며 長生不老하고자하는 心理는 그누구나대한한바이어늘 一騎當千하는 勇氣와絶倫한精力으로 自己의目的하는바에 向하여 突進해야할 四五十歲나 壯하면 人生의出發期인三三十歲에 根氣와腕力을일코 落伍의生活을하며 早老無能한身體로 還幾歎하는 一生을 보내게된다 그것에 男子로태여난보람이 잇다할수잇겟습니까
그러하오니 조금이라도 自己의體力에對하야 心身의疲勞를 늣기거나 性的欠陷이 잇는것을깨닷게되시거든 조곰도주저마시고 이제곳 無類의回春強壯精力大藥『킹구ㆍ오브ㆍ킹구스』를服用해보시요 妙効百出의機能으로 먹는그날부터 萬事가그만解決되게되실것입니다

驚異的快速効果

生殖學界에 世界的으로 大權威인 日, 獨醫學博士 羽太銳治 先生이 人體의生殖腺機能에對하여 多年間解剖的,顯微鏡的研究의結果 人間의生殖,成長,老衰等사람의一生은 그全部가生殖腺內分泌機能(性호르몬)盛衰如何에잇다는 發見을하고 苦心努力研究한後에 創製한것이 本科學的回春劑『킹구ㆍ오브ㆍ킹구스』인바本劑는 靑春期에잇는가장精力이絶倫한 男性動物의 生殖腺에서 抽出한 數十種의(性호르몬)과 現代醫學으로 靑春感情誘出의促進作用이잇는것이 確實證明된 强性植物의有効成分만을合理的으로 配合하야에그効果가 快速發現되도록 極秘의化學藥品을加入製劑한것인고로 服用하면 不過幾分以內로 靑春으로更生되어 精力과陽氣가猛發해지며 元氣가橫溢해서 如何한性的缺陷이라도 대번에解消되는 早老해진 現代人의그누구나 한번服用할만한唯一의對症藥입니다

注文은速히하십시요

本劑『킹구』로 回春吏少年이되시고 人生의寂寞을 물니치시려는분은 朝鮮에서도 全道有名한藥房에서 販賣하오니 指名買入하시와 使用해주시되 近處藥房에업거나 買入不能하신때에는左記代理店本舖로 振替나 或은郵便으로 先金送付하시여 注文해주시면 急送하오며 價는二○○粒入(小瓶)二圓, 二八○粒入(中瓶)五圓, 六○○粒入(大瓶)十圓입니다 送料는 四十七錢이오나 本舖에서 三十二錢은 負擔하오니 十五錢만은 加算해주시되 代引便注文은 送料十五錢을郵票로 先送해주시요

東京市芝區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京城三七七一番)

元祖 호르몬 强力 最
生殖器能强壯素
キング・オブ・キングス

ベルマン
베루만

咳止め
せき

ベルマン主効
담・기침
喘息・百日咳
氣管支가다루
喉頭가다루
肺結核의咳
其他激甚한咳嗽로安眠이안되는분독연데等에安全奏効

담을업새고
發作을緩和
心臟을保護

ベルマン은一般鎭咳藥과달라中毒性更히업고、鎭咳、祛痰의藥効優秀해서 괴로운咳嗽、發作을鎭定하고咽喉를부드럽게하고 呼吸을便케하는우에 心臟保護力잇는故로 一般痰咳는勿論 特히老人의咳嗽 小兒의百日咳、천식等에 最新理想의良劑입니다
곡常備를!

價(五十錢 一圓二圓) 試用 三十錢
大阪 東京 丹平商會

V—5

京劇
十日ヨリ特選番組 第一回 十一時 第二回 二時半 第三回 六時半
新興東京超大作 若いカ 嵐山・宇佐美・井上共演
新興京都浪曲映畫 吉良の仁吉 櫻井雲日演・大谷日出夫 細門光三郎・國友和歌子
十日ヨリ三日間限リ 前立旅上げ記念公演 半島スヰングショウ

優美館
一月九日より公開 大衆席 金二十錢 均一
日本映ユ社超大作 ジョンウエイン氏 熱演 超速大陸爭覇
新興キネマ東京超大作 杉山美子 宇佐美淳 美鳩まり 高野由美 主演 母に捧ぐる歌
寶說 左渡おけさ 大友柳太郎 高山廣子 主演
事變ニュース

明治座
1月10日ヨリ上映時間表
春しき青の心母 10.00
青強は母心 11.30 3.00 6.50
春青の心 1.36 5.07 8.48
(次週) 新妻問答 牧童と貴婦人

大陸劇場
自至5日より9日マデ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0.00—10.22
ボルカの歌姬 10.25—11.53
娘の問題 11.58—1.08 3.16—4.26 6.45—7.55
ニュース 1.18—1.40 4.36—4.58 8.00—8.22
ボルカの歌娘 1.43—3.11 5.01—6.29 8.27—9.55
次週 踊るロマンス 御婦人

黃金座
八日ヨリ十四日マデ
晴れ日本旅 10.30 2.30 6.30
青春女學生日記 11.05 3.05 7.05
空の彼方へ前篇 12.20 4.20 8.20
〃 後篇 1.35 5.35 9.35
午前中入場者30セン均一

新富座
一月十一日十二日 毎日晝夜二回 一時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新興東京特作 日本の魂
現代劇 悔心曲
米國モノグラ社超大作 殺人怪獸
次週 三十九夜の女

東洋劇場
劇團靑春座新春大公演 紀元二六〇〇年 一月八日부터
孝壽方作 「눈물의天使」 三幕四場
「丈夫一言重千金」 一幕
近日上演 愛慾의密林 四幕 人生大學 四幕五場 愛情의花園 四幕五場
電話 光二五四・四九番

桃花劇場
一月十日十一日 毎日晝夜二回 一時七時 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松竹大船特作 大每ニュース 友情を盜む勿れ
コロムビア社特作 拳銃非常線
東寶映畫社超特作 金語樓の大番頭
次週 日本の魂 曲=殺人怪獸

咸興本町映畫館에서
一月十八日부터(五日間)
演劇號
新作劇本發表週間! 多恨性格舍은 朴順女 女史의 演技를 기대!
東洋의쌍리ー텐當年六歲少女歌姬 스윙그・알벰金吉子嬢 熟演
相對役 金順爲 嬢
YKH

第一劇場
一月十一日부터 改題公演
靑春劇場 第二回 [illegible]
午前十一時半부터

"重慶의 붉은薔薇" 瑛瑛 香港에 出現?

상해(上海)와 홍콩(香港)으로부터 전보로 경성
모치어드려온 희진한 정보를보
면 향일지나의 영화여배우가운
데 가장 유명한 영영(瑛瑛)양
은 작년여름이래 중경(重
慶)으로부터 자최를감추어버렷는
데 요즘하노이(河內)로부터얼마
안가에 향항에나타나서 정양하
고잇다。

●

그는 중경생활의불안과 초
조함을 이야기하고 다시중경
으로돌아갈의사가업슴을 발표
하여 큰충동을 일으키고잇다

●

그는 중경의 장미화(薔薇花)
라고 일컬려서 중경의모던여배
우중에 가장인끼잇는『스타―』
이엿든데 작년이래
종적을 감추어버렷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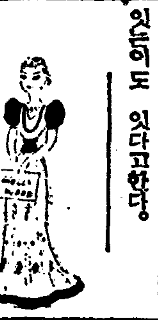
●……●

그날 영화사무소는 전화로
서 그가 구아항공공사의 비
행기로 향항에갓다고 말하엿
슴으로 그친구들이 꼿비행장
에 달려가보앗스나 비행기는
서너시간전에 벌써 출발한뒤
엿다 그가중경으로부터 떠나
버린것으로 말미암아 중경의
지나인들은 다수의 외국인
도 실망시켜서 암담한 중경
의기분을 한층더 어둡게하고

○……○

그의아버지는 광주사람이오 어
머니는 광동(廣東)사람으로서 일
본전에 상해(上海)로부터 홍콩
에가서 영화배우로 만흔인끼를
끌고잇섯든데이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사이에는 이번에 그의영웅
이 경솔하엿다는것을 후회하고
잇는이도 잇다고한다。

映畵片信



『메리픽포―드』 映畵會社設立

『메리·픽포―드』양―그는일
찍기 무성영화시대에『미국의
연인』으로 영화계에 군림햇

섯다 당대 마음고통이라면
중경입니다이예도 그 염염한
지대는 드디어 음악지휘가인
『바디―로쟈스』씨와 결혼하
게되엿다 결혼하자 손에 손
을잡고 구주각국으로 재이자
신혼여행의 길을떠나 여섯달
동안 여행을마치고『뉴―욕』
에 돌아왓다。
『나는 런던에 가서 "픽포―
드"영화회사를 만들게되엿
습니다 장차는『런던』서영
화제작에 전치할 작정입니
다 제일차 작품으로는『바
쥐』를 제작하기로 햇습니
다』
이것이 건강한『픽포―드』양
의 귀태당이엇다。
(사진은 "픽포―드"양)

問答

【問】 요즘은 거리 거리『판쓰』가 유행 한다고?

【前回의問】 작년『산타크로쓰』는 웨방탄(防彈)조끼를 입엇나?

【前回答】 『마지노』선을 넘어야하니까

『海燕』當選祝賀會 來十三日午後『萬鼎』에서

본보 신춘 현상문예에입품
으로 입선한 함세덕(咸世德)
씨작 희곡(戲曲)『해연(海燕)』
의 당선축하회가 다음과가치
열린다하며 일반 내빈의 출
석도 환영한다고。

▲時日 一月十三日(土)午後四時

▲場所 市內旭町『萬鼎』(前"보아그랑")

▲會費 一圓

珍問集

▲魚市場에서『바나나』競賣 大戰『에피소―드』

제이차 구주대전이 폭발하자
태서양(太西洋)에잇던 각교전
국의 상선들은 석국의 잠수함
의 습격이 무서워 귀국을
재촉하다가 급한 꿈에『바나
나』사건을 이르켯고 말앗다
이야기는 이러타。
『모록코』에서『바나나』오
백『돈』을 잔뜩 실코 독일
로 가는 도중에대전폭발『뉴
―쓰』를 듯고 말앗다 얼떨
김에 중립국『스페인』영해로
도망쳐지만오백『돈』이란『바
나나』가 무거운 짐이라 배
스길을 더디게한다해서 다바
다에다 처너허버렷다 이틀뒤
『스페인』의 어선이 고기잡으
러 나갓다가 그물을 들어보
니 고기보다는『바나나』가더
만히 잡혓다。
『스페인』의 어부들은 어장
에서『바나나』경매를 붓첫드
니대 호평! 그날 집집마다
의 식탁에는『바나나』잔치엿
드라고。

『타―잔』세번째結婚

『와이즈·뮤―란』군은 세계적수영선
수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스크린』
의『타―잔』으로 모르는 사람이업
게되엇다。
그『와이즈·뮤―란』군이 세번째의결
혼을햇다는소식이들린다。 그의 총애
를 밧는아가씨는 바루 요즘『산프란
시스코』사교계의 명성이 놉흔『베릴·
스콧』양이다。『와이즈』군은 당
년 설흔네살 그의 새씨『스콧트』양
은 스물세살이라한다。
그의첫째안해는일개『땐서―』인『보
비·안―스트』양이고 요즘 이혼해버
린 둘째안해는『루―프·뵈렌드』양으
로서 영화배우다。 (사진은『뮤―
란』군)

오스운쌈지

▲생선

파출소 안으로 웬 헌수룩한
사나이가 뛰어들드니『나으
리 지금 길
에서 이생선
을어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고왓습니다』
순사『허! 참 기특한 사람이
로군 그럼 두고가게 만약일
년이 지내도록 주인이 나서
지안흐면 자네한테 줌세』

映畵街

●金信哉氏의 키쓰

바루 지난 설날그믐날
밤의 어수선함이엇다。
감독 전창근(全昌根)씨와 동
문인 방한준(方漢駿)씨 함께『세브
란스』병원에 입원중이던 지
금은 이미 고인이 된 김
유영(金幽影)씨를 차진일이
잇다。그래서 오래동안 이어
야기 저 어야기 하다가
『그럼 부디 안정하게』
하고 일어서 나오려다가
무슨생각을 하엿든지 와락
고인에게 달려들어 뺨에다
가 힘껏『키쓰』를하엿다。
이『키쓰』를 밧고 김감독
이 고인이 되엇스니까 요
즘 전감독은 만나는 사람
마다 보고서 하는말이
『내가 괘니『키쓰』를 햇
거든』
하며 입맛을 쩍쩍다신다고

●金信哉孃의強心臟

꼿은 바루 종로 화신백화
때는 역시 얼마전
점 식당이엇다。
점심시간이라 입할 초만
원이루어 식당안은 그야
말로 콩주를 이루어 발하
나 드러노흘 틈이 업는데
별안간 방금뎌 사람들의시
선이 좌악몰아 총집중
되엿다。
그도 그럴것이 노골이것
이 요즘 한창 인끼를 엇
고잇는 김신재(金信哉)양이
등에다 어린애를 업고 게
다가 또 천의까지 둘러차
고서 태연하게 통창하여먹
끼려이다。
어떠 가지 따라가던 모씨
가 얼결에 떠 달아오는자 록
신채양의 엽구리를 찌르고서
『아 어린애 아이를 업고
오면 어때요。』
하니까 양은 역시 태연
한、낫비츠로
『왜 업고오면 어때요 누
가뭐래요。』
그래서 모씨는 정신도 업
는듯 마는듯하고 빙곤니를
쳣다나 어쨋다나―。

●崔寅奎氏의映畵觀

바루 며칠전 모처에서
간에 최인규(崔寅奎)씨가
새로이 영화제작사(映畵製作社)를
을 조직하고 그리고 오래
지안아서『귀향(歸鄕)』의 시
정(詩情)이란 신작을 제
작한다는말을 하고가 나간 당
그래서 친구들은 반가운
소식을듣자 축하해서 삼오로
은 천화로 축하인사를 한
즉、최감독은눈이둥그레지며
『아 그건 또 웬 엉뚱한
『데마』야 난 아지도 못
하네』
하며 부정하기에 머리ㅅ속
치를 앓엇다고한다。
『데마』도 이런 종류의
『데마』는 상냥히 후력거―

오디라

十一日(木)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衛生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오늘의메뉴)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新民謠(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講演『保健과食物』 城大講師崔義楹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體操
▲同六時 朝鮮神宮奉讚氷上아이스하키―大會高專部決勝―東京町大學링크로부터中繼―(本館法文學部校庭)
▲同六時 童話『少年勇士』 延星欽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朴允進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 皇紀二千六百年을마지하고서(四) 日本中古史(下) 司空相
▲同八時 소프라노獨唱 一、歌劇『파우스트』中에서 꼿노래 구노―作曲 二、小夜樂 구노―作曲 三、새벽 캐드만作曲 四、歌劇『라·보엠』中에서 미미의노래 푸치니作曲 五、재비의詩 아주아作曲 朴景嬉 伴奏 白景一
▲同八時二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水宮歌 吳太石 杖鼓 韓成俊
▲同八時五五分 집응우는승내 金永昌
▲同九時一〇分 野談『눈오는밤』 慶秋嵐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十二日(金)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學校講座(二) 金鳳鉉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밀만두·어만두·편수만드는法』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오늘의메뉴아두실것
▲午後〇時五分 輕音樂(레코―드)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動物의母性愛』 李德鳳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이야기"나라에몸을바친어른들" 李元珪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라디오時局讀本
▲七時 뉴―스·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 皇紀二千六百年을마지하고서(五)日本近世史(上) 司空相
▲同八時(東) 管絃樂 交響曲第二番 D長調 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몰토―알레그로·콘·브리오 第二樂章라르겟토 第三樂章 스케르초알레그로 第四樂章 알레그로·몰토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로제수톡
▲同八時四〇分 西道歌謠 一、難親歌 二、寧邊歌 三、山念佛 四、朴淵瀑布 金蘭香 金如蘭 遞手 韓成俊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赤壁賦 二、唱劇調 春香歌 金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明日曆

姿態업는"소리"의傳令! 電波에흐르는"來日의聲帶" D·K의珍寶李啓元·宋珍根君

『제―오―디―케―·여기는 경성중앙방송국이올시다 지금으로부터…』
이러케 전파(電波)를 타고 아침의 사무가 시작되어 왼종일 좁다란
방송실(放送室)안에서『마이크』를 잡고 씨름을하는『아나운서―』를 소
개하기로한다。 실여만이나되는 보이지안는 청취자(聽取者)아페서 그
들의 고심은 어떠하면、어떠케 연구를 싸코 잇는가??

『일곱시『뉴―쓰』시간입니다
지나 신중앙(新中央)정권에 대한제
국의 근본방침을 결정할 정
례각의가 열렷습니다 예……』
일곱시『뉴―쓰』시간에『라
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
리―이것은『아나운서―』이
계원(李啓元)군의 목소리다。
이게원군은 송진근(宋珍根)
군과아울러 현재 제이방송과
(第二放送課)의『아나운서―』
진의 장벽인것이다。
경기도 진위(振威)서 나서
보전(普專)을마치엇고、졸업을
하자곳『아나운서―』로들어와
서 벌써오년째나 된다는『아
나운서―』로서는 그중 오래
인『맴버―』다。
『방송이 업는 낫가른 시간
은 어떠케 보내십니까?』
마악『뉴―쓰』방송을 마치
고 나오는 군을、『도어』아
페 대기하고 섯다가 부들엇
다。
『집에서 소설이나 읽다가、
실시증이나면 다방(茶房)에 나
가서 차나 마시죠。』
『참 아직 장가 전이시라죠。』
『장가요……?』
하더니 좀 우서보이며
『왜 중매드시겟습니까。』
하며 슬쩍 농조로 들리붓는
품이 여간 사람이 조하보이
지안는다。기자도 이 기회를
노치지안흐려고 쏙 우서보이
고、어깨를 툭 치고나서、
『참 계원씨는 무용가를 조
하하신다는 소문이 잇든군요。』
하니까、부정도 긍정도 업시
이 유쾌한 총각은 한바탕웃
고서 대답을 피해버린다。
『하루의 생활은? 우선 신
문에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기자는『쿠나―른』의
일기의 단편을 연상하며、
『목소리의 연습이 심드시죠。』
하니
『그럼요。전날밤 술을 먹은
지、또는감기나 들리기나하면
여간고생하는게아닙니다。』
말을 끄내서 좀 재미잇게
진행되려니까 급사아이가 뛰어
들어오더니 전화가 왓다고 전
한다。
『그럼 잠간 실례 하겟습니
다。』
하며 이군이 급사를따라 나
가자 기자도 엉덩을 너코자
리에서 일어섯다。

▼……▲

이게원군의 목소리나 말투가
후더분하고 구수한 맛이잇다
면 송진근(宋珍根)『아나운서
―』는또박또박하고 처녀의목
청가치 명랑하다。
송군의 고향은 개성(開城)이
고 학교는 역시 이『아나운
서―』와가치 보전(普專) 법
과(法科)를 나와서 한해늦게
『D·K』로 들어와서 벌써
사년째 잡아들엇다고한다。
『방송하시다가 후나신적은업
습니까?』
하고 물으니
『웨 업세요 만치요 바루
"아나운서―"인가(認可)가나
와서 두어달후 어느 여름날
일요일이엇습니다。 그날은 야
군인데 좀 일직 들어왓다가
한두 더움기에 세수를 하고
잇스려니까 급사아이가 와서
네시『뉴―쓰』시간이라고 독
촉을 하는군요。사실은 나는
그시간이 업는데 아무도 보
이지 안코 얼른 들어가서
『뉴―쓰』를 말하라는군요。
그래서 고만 세수도하다말고
허둥지둥 얼굴에다 비누투성
이를 하고들어가서 정말땀빼
일이 잇습니다。』
아무도 보이지안코 또는 아
무도 업는 텅 빈 방이지만
『마이크』만 대하고 안즈면『아
나운서―』의 눈아페는 언제
나 수천 수만의 청취자의 얼
굴이 저절로 나타나 보여서
말 한마디 하는것 글 한줄
읽는것에 또는 손에 땀이
쥐어지도록 긴장된다고한다。
『라디오』문화가 오늘의 우
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대하다는것은 지금에 잇서
서는 널리 알려진 상식일것
이다。 이보이지안는 전파(電
波)속에서 또한 명일의『향파
은』을 꿈꾸고 목소리 공부
에 여념이업시 돌아가는『아
나운서―』들의 고심이 잇다
는것을 청취자는 짐작이나 가
는지……。
(사진은(上)宋珍根君과 (下)李啓元)

永同

永同郡廳

永同郡面長團

永同郡陽山面 矢頃山組合 組合長 朴喜尙

永同驛前 忠北商會 主 洪基倫 電話一〇二番

永同警察署

京釜線深川驛前 穀物貿易 深信精米所 主 姜信學

永同郡龍山面 協議員 金舜憲

孫在廈

賀正

忠北永同郡深川面 深川酒造株式會社 裵相鉉

龍化酒造場 金丁洙

京釜線永同驛前 黃石雲母赤鐵 天覺鑛山組合事務所 岡本正二 李琪鍾

永同郡學校長團

永同稅務署

永同朝鮮酒酒造組合

永同酒造株式會社

永同郡鶴山面 鶴山酒造株式會社 李鎭洛

鄭泰烈

京釜線永同驛前 普興醫院

中澤材木店

錦山金融組合 孫德鳳

漢城銀行 永同支店

マルタ洋服店 主 金永述

東洋金山株式會社 製鍊所

朝鮮忠北永同驛前 新興商店 主 李聖 電話取次六八番

京釜線永同驛前 永淳商會 電話五十五番

三宅勝三郎

京釜線永同 南北棉業株式會社 繰綿工場

京北トラック運輸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宇都宮善市

忠北永同 永同金融組合

京釜線永同驛前 合名會社 永同材木店 電話四〇番

崔芝綸

永同郡陽山面 新昌醫院

永同邑深川面 面協議員 南相哲

朴喜正

呂禹鉉

永同郡陽山面 面協議員 權俊成

鄭溶眞

金演弘

永同學校組合 管理者 宇都宮陽二郎

忠北永同市場五八五番地 綿絲布木各種雜貨卸賣商 金德雲

永同商會

喪中欠禮 永同邑深川面草江里 宋在龜

敎化

京圖線大石頭 朝日商店 劉鳳鐵

內科外科產婦人科 京圖線大石頭 大石頭醫院 醫師 李聖圭

敎化縣南大石河其榮組合長 鄭基斗

協和會敎化縣本部 職員一同

京圖線大石頭驛 西鮮旅舘 金世和

京圖線哈爾巴嶺 新炭商 崔禹烈

京圖線哈爾巴嶺 甲長 鄭成泰

大石頭驛 請負業 許[illegible]鎭

敎化縣南大石河 車聲振

協和會敎化街分會 職員一同

敎化門內 李範道

大石頭驛 東光國民學校後援會

北滿商事株式會社

京圖線敦化驛前門外 料理 大和舘 主 元順愛 電話六二番

京圖線大石頭驛 李鍾蕃

京圖線大石頭驛 朴春寶

大石頭驛 土木建築請負業 李元夏

大石頭驛 朴麟洙

京圖線大石頭驛 全基烈

京圖線大石頭驛 趙基明

京圖線哈爾巴嶺 新炭業 延三龍

京圖線哈爾巴嶺 甲長 李昌春

大石頭 高希天

高敞

高敞郡大山面栗村里 大山金融組合長 鄭世煥

興德面興德里 陳興農場精米部 主 陳萬秀

全羅北道 高敞郡廳

高敞郡初等敎員會

財團法人 高敞中學校 理事 姜大湜 理事 李休烈 理事 愼鏞植

高敞 曹秉烈

高敞產業組合 職員一同

全北高敞邑內 高敞窯業株式會社

高敞郡 高敞面長 崔東奎

雅山面職員一同

星松面職員一同

富安面長 鄭芝源

古水面長 朴成根

高敞郵便所 所長 鈴木保治

星松公立尋常小學校 後援會長 鄭泰煥

星松面三台金山 李秉德

大山面山亭里 李鍾杓

新林面法止里 新林面協議員 金百洙

三養社 高敞農場 主任 金相根

高敞邑改良通 朝鮮料理 永樂舘 主 申金玉

星松面山水里貯水池工事場 中村組

栗栖

高敞面月山貯水池工事場 羅洪河

星松面山水貯水池工事場 金必來

大山面山亭里 高金在

海里面安子市 光新堂藥局 主 金基南

高敞面砂防事業區 表在豐

高敞農民學校 校長 桃澤義美

成歡

京釜線成歡驛前 成歡酒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井石金 常務取締役 上澤 相談役 支配人 渡邊

京釜線成歡驛前 土木建築請負業 中山武市

京釜線成歡驛前 三成商會

京釜線成歡驛前 三成商會 魚物部

京釜線成歡驛前 綿絲布木日用雜貨 和成商會 鄭祥鉉

京釜線成歡驛前 中央精米所 中央コンクリ瓦工場

京釜線成歡驛前 大興旅舘 主 金元西

鎭海

慶南道會議員 洪祐伸

鎭海邑會議員 李敬玉

鎭海邑會議員 曹斗洪

鎭海淸風會 警察署長 山崎重雄 驛長 紺藤良次 郵便局長 松元茂治 稅關出張所長 大久保政太郎 養魚場長 庄司俊 海員養成所長 加藤寮平

東洋製絲株式會社 鎭海工場

天加面 私立培英義塾 私立大項學院

天加面協議會員 金晉浩

天加面協議會員 金日泰

天加面協議會員 趙鏞泰

上南面 聖住寺 住持 姜虎用

鎭海邑事務所

鎭海金曜會

敎育保險鎭海代理店 帖佐敬吉

慶南水產會議員 李周完

鎭海邑慶和洞 李成烈

鎭海邑慶和洞 都相述

鎭海邑慶和洞 金物商 安昌海商店

京釜線成歡驛前 中主組運送部 代表者 鄭榮保

京釜線成歡驛前 富星洋服店 主 朴泰益

京釜線成歡驛前 和信自轉車舖 主 李誠煥

京釜線成歡驛前 中華料理 鴻春園

京釜線成歡驛前 中央理髮舘 主 李錫浩

京釜線成歡驛前 成歡石油組合 電話七番

京釜線成歡驛前 地金買入商 趙成奉

京釜線成歡驛前 金萬根

鎭海邑慶和洞 洋品雜貨 慶和洋行

鎭海邑慶和洞 永成理髮舘 主 金柄術

鎭海慶和驛通 酒類食料品 滿鎭商會

上南面事務所

上南酒造場 主 黃順模

天加面 職員一同

天加面城北里 德榮旅舘

天加面大城里 中央商店

昌原郡天加面城北里 日用雜貨 加德商店 主 金鳳儀

鎭海漁業組合

慶和浴場

鎭海慶和洞 東光理髮舘 主 金乙道

鎭海邑慶和洞 濟生堂藥房 主 李起濃

鎭海線上南驛前 南面產業組合

通川

通川郡廳 職員一同